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ANNA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열린 성경과 열린 지도가 필요합니다.

- 윌리엄 캐리

To Know the will of God,
we need an open Bible and an open map.

- William Carey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March 2021, 3월에는

Time 시간 _____

Place 장소 _____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_____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로렌스 형제 –

Brother Lawrence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 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는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대화편 CONVERSATIONS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는 기술(art)도 과학(science)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오직 마음(heart)을 그분께 향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거나(resolutely determined) 혹은 하나님을 위해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지요.

세 번째 대화 THIRD CONVERSATION

모든 일에 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인지하고 존경(high notion and esteem of GOD) 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영적 생활(spiritual life)의 바탕이었노라고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마음에 품고 나니 다른 어떤 관심사를 우선하는 일 없이 모든 잡다한 생각을 믿음으로 물리쳐냈다고 했지요. 그 모든 행동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났습니다. 때로 잠시나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는 이 때문에 안절부절못하는 대신 자신의 서투름(wretchedness)을 하나님께 고백한 후 더 큰 믿음으로 그분께 돌아왔지요. 그분을 잊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더 형편 없어지는지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그분을 더욱 드높이며, 보다 큰 은총(graces)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속이신다는(deceive)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분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고 모든 것을 견디기로(endure) 다짐한 영혼을 오래 놔두실 리도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Divine Grace)이라는 도움(succours)이

준비되어 있음을 매우 자주 겪었습니다. 동일한 경험으로 미루어, 어떤 일을 해야만 할 때 그는 미리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할 시간이 되면, 마치 맑은 거울로 보듯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를 위해 맞춰져 있는 걸 발견했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경험하기 전까진 그 역시 염려하며 업무를 준비했었다네요.

바깥일(outward business)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기억(fresh remembrance)이 솟아 나와 그의 영혼을 감쌌는데, 그것이 너무 뜨겁고(inflamed) 황홀한(transported) 나머지 스스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건(devotion)을 위해 따로 물러나 있을 때보다 밖에서 업무(outward employments)에 파묻힐 때, 오히려 더 하나님과 연합되었지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미래에 닥칠 어떤 육체나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그에게 일어날 가장 끔찍한 것은 오랫동안 즐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sense of GOD)을 잃는 것이라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goodness of GOD)께선 그를 결코 버리지(forsake) 않을 것이며,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견뎌낼 힘을 주실 거라 단언하셨기에 그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상태에 대해 다른 이와 의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도해본 적도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복잡해질 따름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생명도 바칠 준비가 되었다고 자각했을 때, 그는 위험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고스란히 내려놓는(perfect resignation) 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길(heaven)입니다. 그 길엔 우리 행실(conduct)을

비춰줄 빛이 항상 충분하답니다."

영적 삶(spiritual life)을 시작할 때 우리는 신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스스로를 부인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unspeakable pleasures)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를 의지(recourse) 하는 것이고, 그의 은총(grace)을 간청하면(beg) 모든 것이 쉽게 풀린답니다.

아무리 참회로 고행하고(stick in penances) 특별한 훈련(particular exercises)을 한다 해도, 우리의 목표(end)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love of GOD)을 소홀히(neglect) 하면, 많은 이들이 크리스천다운 성장을 보이지 못 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라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명백히 드러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덕(solid virtue)을 조금밖에 보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는 기술(art)도 과학(science)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오직 마음(heart)을 그분께 향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거나(resolutely determined) 혹은 하나님을 위해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지요."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⓪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❶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❷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❸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01

January 금 Fri

지혜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How do we increase our wisdom?

❶ 통독본문 Reading Plan

잠언 Proverbs 1-2장

❸ 새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❹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0

❺ 핵심기

1장은 잠언의 서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자 시작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지혜와 훈계를 깨달아 삶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 2장은 1장에 이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찾고 구해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심을 약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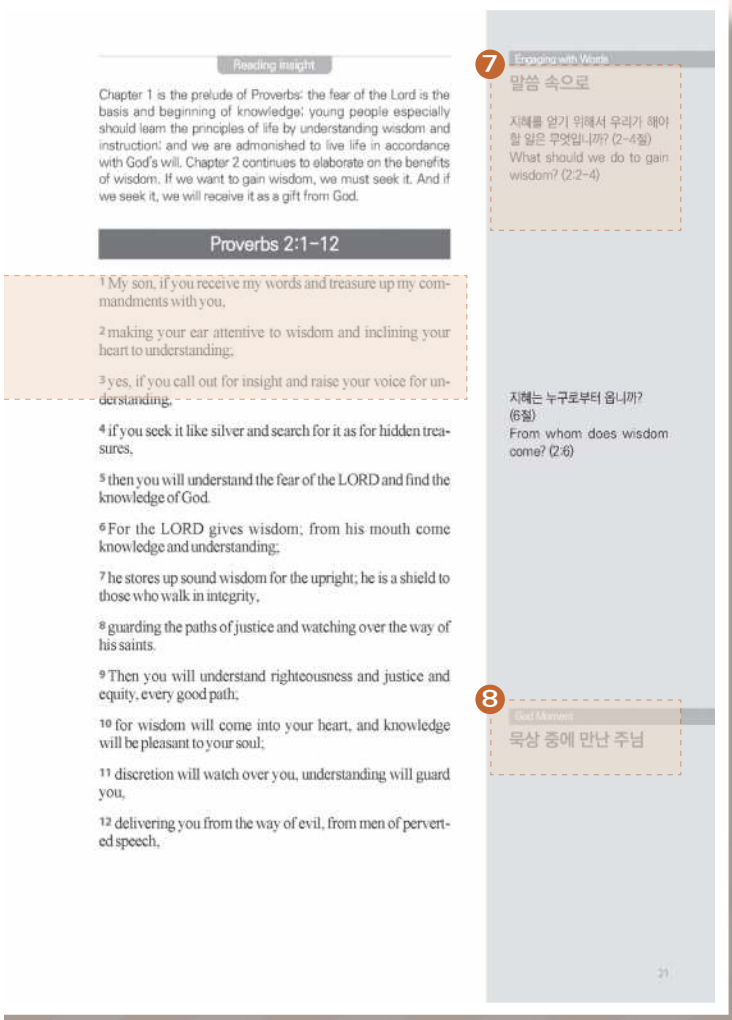
❷ 잠언 2:1-12

❻ 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
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
에서 내심이며
7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
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9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
리라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Chapter 1 is the prelude of Proverb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asis and beginning of knowledge; young people especially should learn the principles of life by understanding wisdom and instruction; and we are admonished to live lif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Chapter 2 continues to elaborate on the benefits of wisdom. If we want to gain wisdom, we must seek it. And if we seek it, we will receive it as a gift from God.

Proverbs 2:1-12

1 My son, if you receive my words and treasure up my commandments with you,

2 making your ear attentive to wisdom and inclining your heart to understanding;

3 yes, if you call out for insight and raise your voice for understanding,

4 if you seek it like silver and search for it as for hidden treasures,

5 then you will understand the fear of the LORD and find the knowledge of God.

6 For the LORD gives wisdom; from his mouth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7 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in integrity,

8 guarding the paths of justice and watching over the way of his saints.

9 Then you will understand righteousness and justice and equity, every good path;

10 for wisdom will come into your heart, and knowledge will be pleasant to your soul;

11 discretion will watch over you, understanding will guard you,

12 delivering you from the way of evil, from men of perverted speech,

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What should we do to gain wisdom? (2:2~4)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6절)
From whom does wisdom come? (2:6)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21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❶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❷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❸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❶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❷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❸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영커리지한인연합장리교회, 금원재(AK)
기쁨의 교회, 정준식(A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연력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Wisdom is a gift from God and must be sought

잠언의 히브리어 단어 '마샬'은 '~와 같다', '비유'로 번역이 되어 삶에서 관찰된 일정한 패턴들의 교훈을 간결하게 담은 훈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바늘 '잠'에 말씀 '언'을 사용하여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가르치는 말이란 뜻이지요.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은 삶을 깊이 관찰하면서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2장에서 솔로몬은 "아이들아"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고하듯이 말씀합니다. 권고의 핵심은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2:-4절).
선물을 구하고 조르는 자녀에게 주지 않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 7:11).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소리를 높여야 하고 보화를 찾듯이 찾으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의외로 지혜를 구하거나 찾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혜를 보화처럼 여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4:7에서는 지혜가 으뜸(supreme)이기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비쳐서라도 명철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보화이며, 그것을 믿는 자는 구하고 찾고 결국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선물이자(6절), 그분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새해에는 으뜸이며 보화인 지혜를 구하고 찾으십시다.

The Hebrew word for proverbs is "mashal" and means "__ is the same as." It is translated as "parable" and is an instruction succinctly containing certain patterns of precepts observed in life. In Chinese, it is 箴言 JamEun. It consists of the word "Jam" which means "a needle" and "Eun" which means "spoken word." Combined it means to teach as if poking with a needle. People with wisdom, including Solomon, deeply observed life and discovered certain patterns existed. Solomon begins Chapter 2 with "My son", like when a father admonishes his children. The essence of the admonition is to "seek and search." (2:3-4)
There is no parent who would refuse to give a gift to a child who earnestly asks for one. Our Father in Heaven will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Matt 7:11) If we want to gain wisdom, then we must ask for it and seek God who is the source of wisdom. We must raise our voice and we must seek it as if seeking treasures. Then we will be given wisdom and understanding. But if we look at ourselves, we might be surprised that we are not seeking or searching for wisdom. It is because we do not treat wisdom as a precious treasure though we know that we need wisdom.
Proverbs 4:7 says that wisdom is supreme: therefore, we should gain understanding even though it may cost all you have. Wisdom is treasure and those who believe that will seek, search, and ultimately gain it. But at the same time, wisdom is given by God and God is wisdom. (2:6) In other words, we cannot gain wisdom if we are separated from God. If we had no wisdom until now, let us seek and find the supreme being and treasure of wisdom as we welcome the New Year.

22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❹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❺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❻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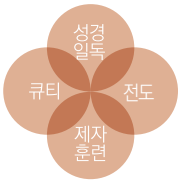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 〉 엄마 〉 첫째 〉 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1 March

03

기쁨의 언덕으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 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1 이사야 Isaiah 40장 ☐	2 이사야 Isaiah 41장 ☐
7	8 이사야 Isaiah 46장 ☐	9 이사야 Isaiah 47장 ☐
14	15 이사야 Isaiah 52장 ☐	16 이사야 Isaiah 53장 ☐
21	22 이사야 Isaiah 58장 ☐	23 이사야 Isaiah 59장 ☐
28	29 이사야 Isaiah 64장 ☐	30 이사야 Isaiah 65장 ☐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3 이사야 Isaiah 42장 ☐	4 이사야 Isaiah 43장 ☐	5 이사야 Isaiah 44장 ☐	6 이사야 Isaiah 45장 ☐
10 이사야 Isaiah 48장 ☐	11 이사야 Isaiah 49장 ☐	12 이사야 Isaiah 50장 ☐	13 이사야 Isaiah 51장 ☐
17 이사야 Isaiah 54장 ☐	18 이사야 Isaiah 55장 ☐	19 이사야 Isaiah 56장 ☐	20 이사야 Isaiah 57장 ☐
24 이사야 Isaiah 60장 ☐	25 이사야 Isaiah 61장 ☐	26 이사야 Isaiah 62장 ☐	27 이사야 Isaiah 63장 ☐
31 이사야 Isaiah 66장 ☐			

02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04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와 시대적 배경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이상"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본서의 주요 인물이자 기록자인 '예샤야후'(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의 이름을 책의 제목으로 하였고,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LXX)도 이를 좇아 '헤사이아스'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 한글개역성경도 '이사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사야가 왕궁의 국내외 정치적인 사건들과 왕궁의 자세한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예루살렘 왕실과 가깝게 지냈던 왕족의 한 사람이거나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6:1, 기원전 736년경)에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기원전 701년경까지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자로 활동했고, 다윗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네 명의 유다 왕 -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 시대에 활동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스알야숩'(7:3)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고, '마헬살랄하스바스'(8:3)는 '노략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친애굽 정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표적으로 삼 년 동안 옷을 벗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 소명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앗수르 산헤립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구원을 예언했고 (36-37장), 히스기야의 질병이 회복되는 사건의 증인이었으며(38장), 바벨론의 사절단을 환송한 히스기야를 책망(39장)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서가 기록된 시기는 역사적 격동기였습니다. 당시 앗수르는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세력을 펼친 강대국이었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 당합니다. 앗시리아의 산헤립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침략합니다.

이사야의 기록목적

이사야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 그리고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비록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의 구조와 내용

전체 66장으로 이뤄진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39장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1-12장,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13-23장), 하나님의 세계 심판과 구원의 선포(24-27장),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말씀(28-39장)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40-55장으로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으며,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구원 신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66장에는 포로기 이후 시대에 나타나는 유대 사회의 갈등과 다가올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이사야 (40-55장)

이사야 40-55장을 '제2이사야' 혹은 '바벨론의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는 제2이사야의 저자가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바벨론에서 활동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사야 45:1-2에는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고레스는 기원전 550년경 메대와 연합군을 이루었고 기원전 546년에 리디아를 점령하였으며, 이후로 바벨론이 급격히 약화되어 기원전 539년에는 바벨론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사야 40-55장에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사건에 대하여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2이사야는 약 기원전 540년 경에 활동하였고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를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으며 그는 출애굽 전승을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이 예언자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받아야 한다(40:1)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여 고향으로 끌고 가실 것과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실 도구로 사용됩니다. 고레스와 함께 '하나님의 종'이 언급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에 관하여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루신 바가 미리 선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이사야 (56-66장)

제3이사야(56-66장)는 이전의 예언자들의 전승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되었으며, 포로기 이후 시대 팔레스틴에 살던 사람들에게 다가 오는 구원의 때

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기록시기는 학자들 사이에서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제2이사야 보다 늦은 시기에 저자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전승들을 재해석하여 썼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참조문헌

왕대일, 신앙공동체를 위한 구약성서 이해 (성서연구사)

김영진외, 구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해설성경 (대한기독교서회)

01

March 월 Mon

주의 길을 예비하라

Prepare the way of the LORD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40장

새550장(통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람들은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언젠가는 좋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그날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0:1-11

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
성을 위로하라
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
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
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
지가 될 것이요
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
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
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붊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
원히 서리라 하라
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
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
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
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
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
도하시리로다

Reading insight

People usually have hope for better days to come even in the midst of today's difficulty and distress. But we are not just people singing of vague hope. We are the people who cling to hope based on the promise of God. Isaiah boldly proclaimed the day based on the promise of God.

Isaiah 40:1–11

1 Comfort,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2 Speak tenderly to Jerusalem, and cry to her that her warfare is ended, that her iniquity is pardoned, that she has received from the LORD's hand double for all her sins.

3 A voice cries: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4 Every valley shall be lifted up, and every mountain and hill be made low; the uneven ground shall become level, and the rough places a plain.

5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6 A voice says, "Cry!" And I said, "What shall I cry?" All flesh is grass, and all its beauty is like the flower of the field.

7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when the breath of the LORD blows on it; surely the people are grass.

8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but the word of our God will stand forever.

9 Get you up to a high mountain, O Zion, herald of good news; lift up your voice with strength, O Jerusalem, herald of good news; lift it up, fear not; say to the cities of Judah, "Behold your God!"

10 Behold, the Lord GOD comes with might, and his arm rules for him; behold, his reward is with him, and his recompense before him.

11 He will tend his flock like a shepherd; he will gather the lambs in his arms; he will carry them in his bosom, and gently lead those that are with you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40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3-5절은 신약성서에 어떤 인물이 선포한 메세지와 같습니까?
There are many familiar expressions in Isaiah 40. What proclamations in the New Testament are the same as those in Isaiah 40:3-5?

풀은 마르고 아름다운 꽃은 시들지만 그와 달리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6-8절)
Grasses wither and flowers fall but unlike these, what is eternal? (40:6-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중앙연합감리교회, 홍진호(IL)
하이드팍한인교회, 이우민(IL)
목회자를 위한 기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오랜 노예생활에 지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해방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고된 종살이가 끝났음을 선언하십니다. 이미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고 하십니다.
3-4절은 왕의 행차에 앞서 달려가며 소리치는 전령의 외침입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황폐한 땅, 길고 긴 노예생활에서 돌아올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것임을 예고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어 백성을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은 오랫동안 왕들의 폭정과 실정으로 인해 무수한 고난을 겪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칩니다. 골짜기는 메꾸고 산과 언덕을 깎아 낮추어 평탄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깎고 낮추어야 할 것들, 취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saiah 40 is the word of liberation and comfort by God to the people who were exhausted after a long period of slavery. God is proclaiming the end of distressful slavery for the people. God proclaimed that they had paid enough for their sins.
Verses 3 – 4 are cries of the messenger who runs in front of the royal entourage. The desolate land was abandoned for a long time. It is a prophesy of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who would rule the people returning from a long period of slavery. The prophet proclaimed that the Sovereign LORD would directly rule the people. This news was gospel to the people who had endured endless distress due to the prolonged tyranny and wicked rule of the kings.
The promise of the kingdom of God to the people of Israel through the prophet Isaiah applies to us today. The kingdom of God begins first in our hearts. The prophet Isaiah tells us to prepare the way for our LORD. Raise the valleys, lower the mountains and the hills, and level them all. Please think about what we need to level or lower, keep or abandon, in order for the sovereignty, rule, and kingdom of God to firmly take root in our liv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2

March 화 Tue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God who is
the first and the last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41장

새342장(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약소국으로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무수한 침략과 억압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이사야 41:1-10

1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
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2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
겨 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
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 같게 하매
3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4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
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5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6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
을 내라 하고
7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
는 메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
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
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
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Reading insight

There are interesting things in common between the people of Korea and Israel. Situated in geopolitically disadvantageous locations, both countries are not militarily strong, and both experienced endless aggression and oppression from stronger neighboring countries. In today's scripture, Isaiah urges us to fix our eyes on God who works in the middle of a history of distress.

Isaiah 41:1–10

1 Listen to me in silence, O coastlands; let the peoples renew their strength; let them approach, then let them speak; let us together draw near for judgment.

2 Who stirred up one from the east whom victory meets at every step? He gives up nations before him, so that he tramples kings underfoot; he makes them like dust with his sword, like driven stubble with his bow.

3 He pursues them and passes on safely, by paths his feet have not trod.

4 Who has performed and done this, calling the generations from the beginning? I, the LORD, the first, and with the last; I am he.

5 The coastlands have seen and are afraid; the ends of the earth tremble; they have drawn near and come.

6 Everyone helps his neighbor and says to his brother, "Be strong!"

7 The craftsman strengthens the goldsmith, and he who smooths with the hammer him who strikes the anvil, saying of the soldering, "It is good"; and they strengthen it with nails so that it cannot be moved.

8 But you, Israel, my servant, Jacob, whom I have chosen, the offspring of Abraham, my friend;

9 you whom I took from the ends of the earth, and called from its farthest corners, saying to you, "You are my servant, I have chosen you and not cast you off";

10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1절에서 민족과 열방들을 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How was God depicted who handled the people and the nations? (41:1)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What did God call His own people in 41:8?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환란 가운데서도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10절)
Why should people of God not be afraid even in the midst of distress? (41:1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블루밍톤한인교회, 안성용(IN)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 이기채(IN)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In the middle of the whirlpool of history

이사야 41장 2절은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으킨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Cyrus)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자는 수많은 나라와 통치자들을 그의 발아래 굴복시킨다고 말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에 의해 조국을 잃고 노예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해방자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한 존재가 태초부터 있었고 인간 역사의 끝 날까지 계실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힘 있는 나라들과 열강들이 패권을 다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사야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과 각축, 일제 치하의 식민지 생활, 그리고 남북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이어진 가슴 아픈 고난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살아남았고 오늘날 놀라운 번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In Isaiah 41:2, God mentions one stirred up from the east. Even though there was no direct reference of who he was, it is generally known to be Cyrus of Persia. God declared that the one who was stirred up by God would subdue nations and kings. Cyrus became the liberator allowing the Israelites to return to their homeland after their conquest and enslavement by Babylon.
The important fact is that from the beginning existed the One who would do such amazing things and who would continue to exist until the end of human history. The confession is that the very One is God.
In the middle of the whirlpool of history where powerful nations compete to gain hegemony, Isaiah urges the weak and struggling people of Israel to fix their eyes on God who is in control of history. God would not forget His people and would redeem them.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eople of Israel reminds us of Korea's recent history. We remember the painful and heart-aching history of aggression and competition of the imperialistic mighty powers of neighboring countries, colonial occupation by Japan, division of countries, and civil war. But in the middle of the history of distress, our people survived and achieved miraculous economic prosperity. God is in control of history. That is the important lesson of the prophet Isaiah for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3

March 수 Wed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나니

I chose you and called you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42장

새501장(통255장)
너 시온아 이소식 전하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사야 42장 1-4절은 종의 노래(The servant song)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에 전부 4번 등장합니다. (49:1-6; 50:4-7; 52:13-53:12)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사야 42:1-9

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
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
리라

5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
리라

8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
희에게 이르노라

Reading insight

Isaiah 42:1-4 is well known as "the servant song". The servant song appears 4 times in the Book of Isaiah. (49:1-6, 50:4-7, 52:13-53: 12) Today's scripture is the first time the servant song appears.

Isaiah 42:1-9

1 Behold my servant, whom I uphold, my chosen, in whom
my soul delights; I have put my Spirit upon him; he will
bring forth justice to the nations.

2 He will not cry aloud or lift up his voice, or make it heard in
the street;

3 a bruised reed he will not break, and a faintly burning wick
he will not quench; he will faithfully bring forth justice.

4 He will not grow faint or be discouraged till he has established justice in the earth; and the coastlands wait for his law.

5 Thus says God, the LORD, who created the heavens and
stretched them out, who spread out the earth and what comes
from it, who gives breath to the people on it and spirit to
those who walk in it:

6 "I am the LORD; I have called you in righteousness; I will
take you by the hand and keep you; I will give you as a cove-
nant for the people, a light for the nations,

7 to open the eyes that are blind, to bring out the prisoners
from the dungeon, from the prison those who sit in darkness.

8 I am the LORD; that is my name; my glory I give to no other, nor my praise to carved idols.

9 Behold, the former things have come to pass, and new
things I now declare; before they spring forth I tell you of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2-4 절에 묘사된 종의 모습을 간단한 단어들로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Please summarize the depiction of servant in 41:2-4 in a few words.

6-7절에 묘사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What are the missions of God's chosen people depicted in 41:6-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퍼듀제자교회, 이종민(IN)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 임일호(K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선택받은 종의 사명
Mission of the Chosen Servant

이사야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해석은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세례와 사역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이사야 42장의 종의 노래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사야 자신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앞장인 이사야 41장 8-9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1, 44:21, 45:4, 48:20, 49:3)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사야는 선택받은 종의 특징과 사명을 언급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절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 한민족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는 종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긍휼로 만방에 공의를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The most familiar to us and representative interpretation of the chosen servant would be the prophecy of Jesus Christ. Even in the book of Gospels among the portions where the baptism and ministry of Jesus are described, the servant songs of the Isaiah are quoted. Some even claim that the servant mentioned here was meant to be Isaiah himself.
But there seems to be a consensus among many biblical scholars that the chosen servant by God here in today's scripture points to the people of Israel. In the previous Chapter 41:8-9, God had already called Israel His chosen servant. In addition to this, throughout the entire book of Isaiah, Israel as God's chosen servant is referenced. (44:1, 44:21, 45:4, 48:20, 49:3) From the viewpoint of the messages and the flow of the Book of Isaiah, it is natural to call Israel the chosen servant of God.
Isaiah mentions the traits and mission of the chosen servant. They do not raise their voice, they have compassion for the weak, they do not despair, and they will work for justice with perseverance. If Koreans were now called and set apart as God's chosen servants, what would God ask of us? Wouldn't it be promoting justice throughout the world with humility and compassion, rather than trying to control the world with military and economic power?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4

March 목 Thu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Fear not,
do not be afraid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43장

새328장(통374장)
너 주의 사람아

(복음성가) 너는 내것이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인생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아름답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전합니다.

이사야 43:1-7, 10-11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
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
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
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
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
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
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
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
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
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
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Reading insight

Life consists of relationships. We live in the middle of so many different relationships, some big and some small. But if there is a most important relationship, it may be the relationship with God. Isaiah deliver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is people with a voice of beauty and affirmation.

Isaiah 43:1–7, 10–11

1 But now thus says the LORD, he who created you, O Jacob, he who formed you, O Israel: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2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through the rivers, they shall not overwhelm you; when you walk through fire you shall not be burned, and the flame shall not consume you.

3 For I am the LORD your God, the Holy One of Israel, your Savior. I give Egypt as your ransom, Cush and Seba in exchange for you.

4 Because you are precious in my eyes, and honored, and I love you, I give men in return for you, peoples in exchange for your life.

5 Fear not, for I am with you; I will bring your offspring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I will gather you.

6 I will say to the north, Give up, and to the south, Do not withhold; bring my sons from afar and my daughters from the end of the earth,

7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whom I created for my glory, whom I formed and made."

10 "You are my witnesses," declares the LORD, "and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 that you may know and believe me and understand that I am he. Before me no god was formed, nor shall there be any after me.

11 I, I am the LORD, and besides me there is no savio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2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구원행위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연상케 합니까?
What historical events in the Bible does the redeeming act of God depicted in 43:2 remind us of?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How does God depict Himself in 43: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문주현(KS)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김다위(K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겐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저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게 그 강아지를 먹이고 돌볼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돌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여줘야 하고, 틈나는 대로 만져주고 놀아줘야 합니다. 산책도 시켜야 하고, 목욕도 시켜야 하고, 발톱과 털도 깎아줘야 하고, 병원에도 자주 가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속한 백성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못나고 문제투성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너는 내 것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God wanted to ensure once more that the people of Israel remembered who they were. God proclaimed that God shaped them, redeemed them and called them. God emphatically said that they were His.
I own a pretty pet dog. The dog totally belongs to me. That means I have total responsibility to feed the dog and to take good care of the dog. It is not easy to take care of a dog. I have to feed the dog with tasty dog food, maintain frequent interaction, and spend time playing together. I have to walk the dog, wash it regularly, cut his nails, and take the dog quite often to the veterinarian. I do all these things because I love the dog and the dog belongs to me.
Shouldn't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our LORD be similar to that? God affirmed that people who belonged to God would be guarded and protected no matter what. Albeit not pretty and full of problems, God said His people are still dear and precious in His eyes. As you begin a new day today, I hope you hear the clear voice of God declaring, "You are mine and I am your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5

March 금 Fri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Apart from me,
is there any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44장

새492장(통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모태신앙인 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독교인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그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종교와 믿음을 가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지 배워 봅시다.

이사야 44:1-8

1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3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4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5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8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Reading insight

There is an expression known as "Cradle Christian". It means to be born in a family where the parents are devout Christians. But no matter how devout the parents may be,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ir offspring will inherit the same religious fervor and faith. Let us study today's scripture and learn how the people of Israel were able to pass their faith to their offspring.

Isaiah 44:1-8

1 "But now hear, O Jacob my servant, Israel whom I have chosen!

2 Thus says the LORD who made you, who formed you from the womb and will help you: Fear not, O Jacob my servant, Jeshurun whom I have chosen.

3 For I will pour water on the thirsty land, and streams on the dry ground; I will pour my Spirit upon your offspring, and my blessing on your descendants.

4 They shall spring up among the grass like willows by flowing streams.

5 This one will say, 'I am the LORD's,' another will call on the name of Jacob, and another will write on his hand, 'The LORD's,' and name himself by the name of Israel."

6 Thus says the LORD, the King of Israel and his Redeemer, the LORD of hosts: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besides me there is no god.

7 Who is like me? Let him proclaim it. Let him declare and set it before me, since I appointed an ancient people. Let them declare what is to come, and what will happen.

8 Fear not, nor be afraid; have I not told you from of old and declared it? And you are my witnesses! Is there a God besides me? There is no Rock; I know not an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1-2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How does 44:1-2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the people of Israel?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What are the promises of God described in 44:3-4?

6절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How does 44:6 describe God?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 정룡재(KS)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상순(K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모태로부터 지으신 하나님
Formed in the womb by God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태에서 지으시고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은 개인이 아닌 민족 전체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나의 종 야곱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고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그 선조들에게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까지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야곱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심지어 손에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독실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쉐마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다.
오늘 많은 이민자 가정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문제로 고민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이주한 이민자 아브라함처럼 이민자인 부모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담긴 의미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떨지요.

Prophet Isaiah said that God had formed the people of Israel in the womb and reared them. In a sense, the entire Israelite race, not just an individual, were born as Cradle Christians. It is because of the promises given by God to the ancestors of Israel, Abraham and Jacob. That is another reason why God kept calling the people of Israel, my servant Jacob. God had made promises of blessing and multiplication long ago to the ancestors of the people of Israel. Even today the Jews have kept the faith that the promises made to their ancestors would be honored by God.
Isaiah 44:5 shows how the people of Israel passed their faith tradition to their offspring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y remember that they are the offspring of Jacob and some even engrave on their palms the words “I am God’s.” Even today, devout Jews recite Shema in Deuteronomy 6, every day and night.
Nowadays many immigrant families struggle to provide good spiritual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Rather than forcing children to go to church, consider Abraham who decided to follow the promise of God and immigrated to Canaan. Share with your children the meaning of God’s promise bestowed to their parent generation who were th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6

March 토 Sat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Clay to the Potter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45장

새300장(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복음성가) 항상 진실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인간은 태어나게 할 자유는 있으나 태어날 자유는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사야 45:3-13

3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4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
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
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
느니라
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
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
는 자니라 하였노라
8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
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9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
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10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11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
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
려느냐
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
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
하였노라
13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Reading insight

Human beings are free to be begotten but not free to be born. The philosophy of existentialism asserts that human beings are like existence thrown into this world without their own volition. In today's scripture Isaiah throws out basic questions about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Isaiah 45:3–13

3 I will give you the treasures of darkness and the hoards in
secret places, that you may know that it is I,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call you by your name.

4 For the sake of my servant Jacob, and Israel my chosen, I
call you by your name, I name you, though you do not know
me.

5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 other, besides me there is
no God; I equip you, though you do not know me,

6 that people may know, from the rising of the sun and from
the west, that there is none besides me;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 other.

7 I form light and create darkness, I make well-being and
create calamity, I am the LORD, who does all these things.

8 "Shower, O heavens, from above, and let the clouds rain
down righteousness; let the earth open, that salvation and
righteousness may bear fruit; let the earth cause them both to
sprout; I the LORD have created it.

9 "Woe to him who strives with him who formed him, a pot
among earthen pots! Does the clay say to him who forms it,
'What are you making?' or 'Your work has no handles'?

10 Woe to him who says to a father, 'What are you beget-
ting?' or to a woman, 'With what are you in labor?'"

11 Thus says the LORD, the Holy One of Israel, and the
one who formed him: "Ask me of things to come; will you
command me concerning my children and the work of my
hands?

12 I made the earth and created man on it; it was my hands
that stretched out the heavens, and I commanded all their
host.

13 I have stirred him up in righteousness, and I will make all
his ways level; he shall build my city and set my exiles free,
not for price or reward," says the LORD of host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토기장이의 비유는 성서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5장 9절과 예레미야 18:6, 로마서 9:21–23에 기록된 토기장이의 비유를 읽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parable of the potter appears many times throughout the Bible. Please read and compare various parables recorded in Isaiah 45:9, Jeremiah 18:6, and Romans 9:21–23.

자신을 지으시고 낳아주신 이에 대한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11–12절)
What are God's responses to the protests of those who were made by God and born by God?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 이동섭(LA)
리스빌연합감리교회, 조성우(L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Not existence thrown into the world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부터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변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사야는 이 질문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때로 우리는 부조리와 불합리로 가득차 있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느낍니다. 어느 누구도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출생의 조건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편안한 삶을 누리는 이가 있고 가난과 질병을 대물림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공평한 삶의 조건들 속에서 때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부모와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유 없이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으신 이, 부르신 이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In today's scripture we hear the cries of existence thrown into the world. The clay protests to the potter why the potter shaped the clay that way. Children asked their parents why they were born. Isaiah is asking us if these questions are appropriate.
Sometimes we feel like we are mere existence thrown into this world that is full of absurdity and unreasonableness. Nobody is born into this world because they desire to be, nor free to choose the condition of birth. Some are born into affluent families and enjoy a comfortable lifestyle but others inherit poverty and illness. In the middle of the unfair condition of our life, sometimes we despair and feel like protesting to our parents and God.
But Isaiah is clear. We are not mere existence thrown into this world without reason. God planned us to be formed in the womb of our mothers. Our life is a long journey seeking the purpose of life bestowed by the LORD who made us and called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7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고난 받는 종’의 전가(轉嫁), 그리고 보람

정찬응 목사(해밀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매를 맞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종’은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전가(轉嫁)’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씌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죗값을 ‘고난받는 종’에게 넘겨서 씌웠습니다. 원래 죗값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은 죄의 크기만큼 치러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번 ‘전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다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가’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자 죄와 죽음과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이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며, 그 결과 죄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에게 전가하도록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

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가져온 제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제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되고,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 죽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모두 제물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죗값을 대신 치르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은 딱 내 죗값만큼만 형벌을 받으십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시고, 손발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십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다 없어졌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어서, 나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것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전가해 주시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죽음을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가 받아 주셨습니다.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맞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전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다 전가 받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지은 모든 죄와 악을 고백하고, 모두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화와 회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고난받는 종', 예수님도 "큰 보람이 있으시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08

March 월 Mon

나는 하나님이라

I am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46장

새 384장(통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유일하시며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과의 비교를 허락치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상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이사야 46:1-10

1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
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
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3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
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
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5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
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6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7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
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8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9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
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
가 없느니라
10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is a proclamation of God about what He is. God does not allow any comparison with other gods because He is unique and there is no other. Isaiah explains how the God of the people of Israel is different from the idols.

Isaiah 46:1–10

1 Bel bows down; Nebo stoops; their idols are on beasts and
livestock; these things you carry are borne as burdens on
weary beasts.

2 They stoop; they bow down together; they cannot save the
burden, but themselves go into captivity.

3 "Listen to me, O house of Jacob, all the remnant of the
house of Israel, who have been borne by me from before
your birth, carried from the womb;

4 even to your old age I am he, and to gray hairs I will carry
you. I have made, and I will bear; I will carry and will save.

5 "To whom will you liken me and make me equal, and com-
pare me, that we may be alike?

6 Those who lavish gold from the purse, and weigh out sil-
ver in the scales, hire a goldsmith, and he makes it into a god;
then they fall down and worship!

7 They lift it to their shoulders, they carry it, they set it in its
place, and it stands there; it cannot move from its place. If
one cries to it, it does not answer or save him from his trou-
ble.

8 "Remember this and stand firm, recall it to mind, you
transgressors,

9 remember the former things of old; for I am God, and there
is no other; I am God, and there is none like me,

10 declaring the end from the beginning and from ancient
times things not yet done, saying, 'My counsel shall stand,
and I will accomplish all my purpos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사야가 바라본 우상들의 실체는 어떤 것입니까? (1–2절)
What are the substances of the idols that Isaiah saw? (46: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은 어떤 것이며 이방 신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3–4절)
What are the promises of God to the people of Israel and how are they different from idols of the gentiles? (46:3–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보스톤연합감리교회, 안신형(MA)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최진용(MA)
목회자를 위한 기도

나와 같은 이는 없다
There is none like me

고대사회에는 각각의 민족이나 국가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왕이나 통치자들은 국가의 큰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점을 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상들이 넘어지고 처량하게 가축과 짐승들에 실려 이동하는 장면을 봅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으로 숭배되던 강대국의 신들이 피곤한 짐승들에게 짐이 되어 끌려가는 장면은 그들이 얼마나 헛된 우상들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은 자신의 몸 하나도 스스로 가누지 못하며, 자신들에게 절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우상들과 자신을 구분하십니다. 무기력한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보호하셨고 그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고.

In ancient society each tribe and each nation had their own god to worship. Kings and rulers often worshipped their gods or relied on divination whenever the country encountered significant events.
Isaiah witnessed how the idols of Babylon fell and were sadly dragged by cattle and animals. The idols were once revered to have unchallengeable and mighty power but they are now being dragged by animals that looked tired. This scene clearly showed to the people how meaningless these idols were. Those idols made of gold and silver by the people could not even take care of themselves, nor could they protect the people who bowed to them.
God distinguishes Himself from these idols. Unlike those helpless idols, God protected His people even before they were born and would protect them until their hair turned gray.
With compassion God admonished the people of Israel who became oblivious of their true and only God who had chosen them and did not trust Him. I am God. There is none like m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9

March 화 Tue

내 앞에 잠잠하라

Be silent
in my presence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47장

새246장(통221장)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짧은 시간에 세계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국의 이러한 위상이 계속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하고 예고한 성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이사야 47:1-11

1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
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땁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2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4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
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5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
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
하리라
6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
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
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
게 메우며
7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
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
지 아니하였도다
8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
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
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9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
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10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
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
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
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
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
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Reading insight

We live in the richest and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become the center of the world in a short time. However it is not certain how long the USA will sustain her strong nation status. Having watched and prophesied the ups and downs of many nations, what kind of lesson does the Bible offer us?

Isaiah 47:1–11

1 Come down and sit in the dust, O virgin daughter of Babylon; sit on the ground without a throne, O daughter of the Chaldeans! For you shall no more be called tender and delicate.

2 Take the millstones and grind flour, put off your veil, strip off your robe, uncover your legs, pass through the rivers.

3 Your nakedness shall be uncovered, and your disgrace shall be seen. I will take vengeance, and I will spare no one.

4 Our Redeemer--the LORD of hosts is his name-- is the Holy One of Israel.

5 Sit in silence, and go into darkness, O daughter of the Chaldeans; for you shall no more be called the mistress of kingdoms.

6 I was angry with my people; I profaned my heritage; I gave them into your hand; you showed them no mercy; on the aged you made your yoke exceedingly heavy.

7 You said, "I shall be mistress forever," so that you did not lay these things to heart or remember their end.

8 Now therefore hear this, you lover of pleasures, who sit securely, who say in your heart, "I am, and there is no one besides me; I shall not sit as a widow or know the loss of children":

9 These two things shall come to you in a moment, in one day; the loss of children and widowhood shall come upon you in full measure, in spite of your many sorceries and the great power of your enchantments.

10 You felt secure in your wickedness, you said, "No one sees me"; your wisdom and your knowledge led you astray, and you said in your heart, "I am, and there is no one besides me."

11 But evil shall come upon you, which you will not know how to charm away; disaster shall fall upon you, for which you will not be able to atone; and ruin shall come upon you suddenly, of which you know noth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사야는 바벨론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1절)
What does Isaiah compare Babylon to? (47:1)

이사야는 바벨론의 운명을 어떻게 예고합니까? (2–5절)
How does Isaiah prophesy the fate of Babylon? (47:2–5)

이사야는 바벨론 멸망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
To what did Isaiah attribute the fall of Babylon? (47:1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젼교회, 이충호(MA)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 조상연(M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아, 바벨론이여
Ah! Babylon!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방에 거대한 제국을 이룩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앗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오늘날 이라크, 시리아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찬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강력한 바벨론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약소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손쉽게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을 이사야는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모든 주변 국가들을 무릎 꿇린 사납고 강한 여왕이었던 바벨론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미래를 예언하며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을 합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인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약소국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은 기나긴 고난의 시절을 이겨내고 과거 앗시리아, 바벨론 제국이 융성했던 중동지역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 냈을까요? 앗시리아, 바벨론에게는 없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Babylon was a super power in the ancient Near East region ruling over a large territory. Babylon flourished as a resplendent Mesopotamian culture centered around present-day Iraq and Syria after they conquered the Assyrian empire. Compared with mighty Babylon, Israel was an insignificant pigmy. Babylon easily conquered Israel and took many as prisoners.
Isaiah called Babylon, the Queen of Nations. The glory of Babylon did not last long even though it was at one time a nasty and powerful queen subduing all neighboring nations to their knees. Isaiah prophesied such a future and the fall of Babylon.
Some say that history repeats itself. The history of humans recorded the rise and fall of so many mighty nations. Israel was a feeble and weak country but had overcome a long period of afflictions. Israel became one of the strongest nations in the Middle East where the old Assyria and Babylon once flourished. What made the difference? What do Assyria and Babylon not have that Israel does hav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0

March 수 Wed

야곱의 집이여

House of Jacob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48장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벌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 48:1-11

1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
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
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3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
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4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
요 네 이마는 놋이라
5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
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6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
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7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
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
가 알았음이라
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0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
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11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
게 주지 아니하리라

Reading insight

The people of Israel had chosen the way of destruction by not obeying God. But God had a plan to renew them through afflictions rather than punishing the people.

Isaiah 48:1–11

1 Hear this, O house of Jacob, who are called by the name of
Israel, and who came from the waters of Judah, who swear
by the name of the LORD and confess the God of Israel, but
not in truth or right.

2 For they call themselves after the holy city, and stay them-
selves on the God of Israel; the LORD of hosts is his name.

3 "The former things I declared of old; they went out from
my mouth, and I announced them; then suddenly I did them,
and they came to pass.

4 Because I know that you are obstinate, and your neck is an
iron sinew and your forehead brass,

5 I declared them to you from of old, before they came to
pass I announced them to you, lest you should say, 'My idol
did them, my carved image and my metal image command-
ed them.'

6 "You have heard; now see all this; and will you not declare
it? From this time forth I announce to you new things, hid-
den things that you have not known.

7 They are created now, not long ago; before today you have
never heard of them, lest you should say, 'Behold, I knew
them.'

8 You have never heard, you have never known, from of old
your ear has not been opened. For I knew that you would
surely deal treacherously, and that from before birth you
were called a rebel.

9 "For my name's sake I defer my anger, for the sake of my
praise I restrain it for you, that I may not cut you off.

10 Behold, I have refined you, but not as silver; I have tried
you in the furnace of affliction.

11 For my own sake, for my own sake, I do it, for how should
my name be profaned? My glory I will not give to anot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사야가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1–2절)
What are the problems of the people of Israel that were pointed out by Isaiah? (48:1–2)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4절)
What does Isaiah attribute the intransigence of the people of Israel to? (48: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 강명석(MA)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태(M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고난의 풀무질
The furnace of afflictions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위선과 완고함을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은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토와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서 노예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패망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바라봅니다. 비록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불순종한 대가로 당하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단련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는 고난의 풀무질이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화로 안에서 달궈지고 망치로 두드려 가는 과정을 반복하여 단단한 강철이 제련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멸망, 포로생활로 이어진 고난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제련하기 위한 풀무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신의 삶에 닥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풀무질을 볼 수 있습니까?

Through Isaiah God pointed out the hypocrisy and the intransigence of the people of Israel. Israel asserts that they are the chosen children of Abraham. They serve God, but only in words. They did not trust God in their deeds. God had warned them through prophets so many times in the past but the people of Israel ignored the warnings of God and eventually fell into the path of destruction.
The result of ignoring God's warning and not trusting God was devastating. Israel lost their territory and sovereignty and as a result they were captured as prisoners and became slaves in Babylon. But Isaiah saw God's hidden plan through the fall of Israel and through their afflictions. Though they did not listen to the warnings of God and were paying the price for their disobedience, the afflictions were God's discipline for the people of Israel to be born again.
Isaiah calls this the furnace of afflictions. Annealed steel is stronger because it is hammered repeatedly while hot in the furnace with the process repeated many times. God called the war, their life as prisoners, and the history of afflictions, the furnace to anneal the people of Israel. Isn't our life like that? Can you see the furnace of God working through the afflictions and distress of your lif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1

March 목 Thu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I have engraved you on the palms of my hands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49장

새305장(통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복음성가)
누군가 널 위하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고통은 사람의 심신을 황폐하게 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나긴 바벨론 유배생활을 통하여 경험한 것이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사야 49:11-20

11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니

12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13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14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7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8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19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20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Reading insight

There is a saying that long illness does not produce filial piety. Long afflictions turn our body and mind desolate. Trust and faith that are the basis of human relationship begin to disappear. The experience of Israel through prolonged life of slavery in Babylon is like that. Now is the time for them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Isaiah 49:11-20

11 And I will make all my mountains a road, and my highways shall be raised up.

12 Behold, these shall come from afar, and behold, these from the north and from the west, and these from the land of Syene."

13 Sing for joy, O heavens, and exult, O earth; break forth, O mountains, into singing! For the LORD has comforted his people and will have compassion on his afflicted.

14 But Zion said, "The LORD has forsaken me; my Lord has forgotten me."

15 "Can a woman forget her nursing child, that she should have no compassion on the son of her womb? Even these may forget, yet I will not forget you.

16 Behold, I have engraved you on the palms of my hands; your walls are continually before me.

17 Your builders make haste; your destroyers and those who laid you waste go out from you.

18 Lift up your eyes around and see; they all gather, they come to you. As I live, declares the LORD, you shall put them all on as an ornament; you shall bind them on as a bride does.

19 "Surely your waste and your desolate places and your devastated land-- surely now you will be too narrow for your inhabitants, and those who swallowed you up will be far away.

20 The children of your bereavement will yet say in your ears: 'The place is too narrow for me; make room for me to dwell i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What are the promises of God to the people of Israel?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15절)
What did Isaiah compare God's mind toward the people of Israel with? (49:1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늘사랑연합감리교회, 박종희(MD)
베다니한인교회, 박대성(MD)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I will not forget you!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적들을 피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셨다 생각합니다. 길고 긴 포로생활은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마저 병들게 한 듯합니다. 낙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하여 제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고 혹시 인간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명심해야 할 내용들을 써넣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 가까운 친구도 나를 떠나가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항상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God proclaimed the restoration of Israel through the prophet. Prisoners would return to their homeland, they would no longer hunger or thirst, and those who were scattered to avoid the enemy would come back from all over.
But the people were in despair. They thought that God had forgotten them. The prolonged life of prisoners made their body and even their heart and soul sick. God speaks to Israel who is in despair. God questions how in the world a mother would forget her newly born infant child. Although a human being might forget their offspring, God would never forget His people. God said that He had engraved Israel on the palms of His hands. It is like when we write something on our palms that we do not want to forget because it is important to us.
At the moment when our life faces the most desperate situation, when a close friend betrays and leaves, let us remember that there is someone who will never forget us. As a mother always remembers her child she has borne, God always remembers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2

March 금 Fri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Because the Lord Helps Me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50장

새314장(통511장)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종의 노래 중에 3번째 노래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종의 노래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50:4-11

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
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
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
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
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
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9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해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
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
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1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Reading insight

Today's text is the third of the Servant Songs that appear in the Book of Isaiah. Today's text contains a different message compared to other Servant Songs.

Isaiah 50:4–11

4 The Lord GOD has given me the tongue of those who are
taught, that I may know how to sustain with a word him who
is weary. Morning by morning he awakens; he awakens my
ear to hear as those who are taught.

5 The Lord GOD has opened my ear, and I was not rebel-
lious; I turned not backward.

6 I gave my back to those who strike, and my cheeks to those
who pull out the beard; I hid not my face from disgrace and
spitting.

7 But the Lord GOD helps me; therefore I have not been dis-
graced; therefore I have set my face like a flint, and I know
that I shall not be put to shame.

8 He who vindicates me is near. Who will contend with me?
Let us stand up together. Who is my adversary? Let him
come near to me.

9 Behold, the Lord GOD helps me; who will declare me
guilty? Behold, all of them will wear out like a garment; the
moth will eat them up.

10 Who among you fears the LORD and obeys the voice of
his servant? Let him who walks in darkness and has no light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and rely on his God.

11 Behold, all you who kindle a fire, who equip yourselves
with burning torches! Walk by the light of your fire, and by
the torches that you have kindled! This you have from my
hand: you shall lie down in tormen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4절)
What is the servant of the Lord called to do? (50: 4)

감당하기 힘든 온갖 고난과 모욕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8절)
How is it possible to endure all kinds of suffering and insult? (50: 6-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령의 불꽃 교회, 유재유(MD)
에덴연합감리교회, 신요섭(MD)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고난 받는 종의 노래
A Song of the Suffering Servant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특권과 사명이 언급됩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된 "학자"라는 말은 선생이나 깨우친 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종으로서 듣는 귀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그 말씀으로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특권과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 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특권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고난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내 몸을 내어주고 피하거나 가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모욕과 수모를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도 동일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 뺨도 내어주라는 말씀, 그리고 산상설교의 핵심인 팔복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In our text today, we can read about the special privilege and calling given to the Lord's servant. The "well-instructed tongue" in the English Bible is translated in the Korean Bible as "tongue of a scholar," indicating a person who is a teacher or a person who has gained a great understanding. Our text today says that God has given that person a listening ear to understand God's Word and the ability to sustain the weary with God's Word.
This kind of calling and special privilege is given not only to those in ordained ministry but also to laity. Let us remember that the privilege of listening and understanding the Word is given in order to comfort and build others.
There is another privilege that has been given to the Lord's servants. That is the ability to endure the trials that have been given to them. Our text today talks about offering one's back to those who beat them and not hiding when people mock or spit at them. They do not feel disgraced even when they are mocked and insulted. The reason how this is even possible is because the Lord is there to help the servants and to be with them.
Jesus also gave us a similar teaching. We see this in his teaching about turning the other cheek when one is struck on a cheek and also in his teaching of Beatitudes in the Sermon on the Moun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3

March 토 Sat

반석과 구덩이를 생각하라

Look to the Rock and to the Quarry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51장

새384장(통43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나긴 포로생활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읍시다.

이사야 51:1-8

1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
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
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
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
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3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
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4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
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
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
하리라

6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해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
리라

7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
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
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8 옷 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 같이 좀벌레
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Reading insight

In today's text, we find God's comforting words to the people of Israel. As we meditate on the words of comfort for the people who have become weary in their life as exiles, may we also find comfort and strength in our own lives.

Isaiah 51:1-8

1 "Listen to me, you who pursue righteousness, you who seek the LORD: look to the rock from which you were hewn, and to the quarry from which you were dug.

2 Look to Abraham your father and to Sarah who bore you; for he was but one when I called him, that I might bless him and multiply him.

3 For the LORD comforts Zion; he comforts all her waste places and makes her wilderness like Eden, her desert like the garden of the LORD; joy and gladness will be found in her, thanksgiving and the voice of song.

4 "Give attention to me, my people, and give ear to me, my nation; for a law will go out from me, and I will set my justice for a light to the peoples.

5 My righteousness draws near, my salvation has gone out, and my arms will judge the peoples; the coastlands hope for me, and for my arm they wait.

6 Lift up your eyes to the heavens, and look at the earth beneath; for the heavens vanish like smoke, the earth will wear out like a garment, and they who dwell in it will die in like manner; but my salvation will be forever, and my righteousness will never be dismayed.

7 "Listen to me, you who know righteousness, the people in whose heart is my law; fear not the reproach of man, nor be dismayed at their revilings.

8 For the moth will eat them up like a garment, and the worm will eat them like wool; but my righteousness will be forever, and my salvation to all generation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Why does God tell the Israelites to look to Abraham and to Sarah? (51:2)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3-4절)
What is God's promise for Israel? (51: 3-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워싱톤감리교회, 이승우(MD)
하늘비전교회, 장재웅(MD)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네가 나온 곳을 기억하라
Remember Where You Came From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곳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와 구덩이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은 그들의 기원이 불가능한 곳에서 온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긴 세월 자식이 없었던 불임의 두 노인들 사이에 태어난 이삭을 통해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퍼져 나갔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희망 없는 포로생활로 지치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비교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적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본향으로 향하게 하실 것이고 황폐해진 땅을 에덴동산처럼 만드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루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잠시라도 당신이 과거에 어디에서 왔는지 묵상해봅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세월,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었던 여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묵상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바라봅시다.

God instructs the people of Israel to remember where they came from. When they are told that they should "look to the rock from which they were cut and to the quarry from which they were hewn," they are being reminded that they originated from improbable places. God reminds them about Abraham and Sarah. And by doing so, God wants them to remember that they became a great nation of people like stars in the sky and sands in the ocean because of Isaac who was born to Abraham & Sarah who were old and far beyond the child-bearing age.
The situation that Abraham and Sarah were in is compared to the situation of the Israelites in exile who had become weary without any hope. God promises Israelites that, as One who is able to perform miracles in impossible situations, God will bring them back to their homeland and turn deserts like Eden.
Even in hectic and busy life, take the time to consider, even just for a moment, from where you came. Consider where you are at the present moment and where you are heading. As you consider God's grace and guidance that were with you through the difficult moments in your life to this day, may you face tomorrow with new hop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4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겟세마네 동산에서"

송종남 목사(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밤을 만날 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과 씨름할 때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믿음이 무너질 때
그래서 곁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 섭섭함이, 기막힘이, 무상함이, 억울함이
엄습해 올 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수 없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싶을 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데
주님 음성 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보이지 않고
기도조차 드릴 수 없고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캄캄한 밤에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땀은 피가 되고
눈물은 통곡되고
울음은 절규가 되어
퍼져가는 그 밤
겟세마네 동산
거기 계신 주님

그 주님 옆에서
그 주님 옆에서
그냥 앉아라도 있겠습니다.

15

March 월 Mon

시온이여 깰지어다

Awake, Awake Zion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52장

새347장(통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2:1-10

1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
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2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
스로 풀지어다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4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
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5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
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6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7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
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
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
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9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
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
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
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을 보았도다

Reading insight

Today's text contains the message of liberation for the people of Israel.

Isaiah 52:1-10

1 Awake, awake, put on your strength, O Zion; put on your beautiful garments, O Jerusalem, the holy city; for there shall no more come into you the uncircumcised and the unclean.

2 Shake yourself from the dust and arise; be seated, O Jerusalem; loose the bonds from your neck, O captive daughter of Zion.

3 For thus says the LORD: "You were sold for nothing, and you shall be redeemed without money."

4 For thus says the Lord GOD: "My people went down at the first into Egypt to sojourn there, and the Assyrian oppressed them for nothing.

5 Now therefore what have I here," declares the LORD, "seeing that my people are taken away for nothing? Their rulers wail," declares the LORD, "and continually all the day my name is despised.

6 Therefore my people shall know my name. Therefore in that day they shall know that it is I who speak; here am I."

7 How beautiful up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him who brings good news, who publishes peace, who brings good news of happiness, who publishes salvation, who says to Zion, "Your God reigns."

8 The voice of your watchmen--they lift up their voice; together they sing for joy; for eye to eye they see the return of the LORD to Zion.

9 Break forth together into singing, you waste places of Jerusalem, for the LORD has comforted his people; he has redeemed Jerusalem.

10 The LORD has bared his holy arm before the eyes of all the nation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shall see the salvation of our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강대국들에게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4-5절)
What did God's people experience at the hands of the powerful nations? (52:4-5)

파수꾼들이 외치는 메세지는 어떤 것입니까? (7절)
What is the message proclaimed by the watchmen?(52: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무지개연합감리교회, 조태섭(ME)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 김대기(MI)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그날이 오면
In That Day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의 현대사는 흡사합니다. 우리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솔로몬 이후로 오랫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앗시리아에 멸망당하였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정복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 70년간은 포로생활을 하였고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 민족이나 해방과 독립을 타국의 힘에 의해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 해방되었고 우리는 일본에 패전을 안긴 미국에 의해 독립을 얻었습니다.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해 거저 얻은 독립과 해방은 그다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해방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6절)는 말씀은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오신 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복잡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에서 우리 민족을 진정한 해방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민족과 조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The history of Israelites and that of Koreans are similar in many ways. As the Korean peninsula is currently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the nation of Israel was also divided for a long time after King Solomon. The Northern kingdom was destroyed by Assyria and the Southern Kingdom was conquered by Babylon. The people of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were exiled in Babylon for 70 years and Koreans lived without self-autonomy for 36 years under the control of Japanese regime. More surprising thing is that both Israel and Korea gained independence and liberation through the help of an outside power. Israel was liberated when Cyrus King of Persia conquered Babylon and Korea gained independence through United States when it defeated Japan in war.
One can say that being liberated and gaining independence by an outside power rather than by one's own effort as something one cannot be proud of. However, the people of Israel believed that their liberation did not come from a Persian king but from God who chose him to achieve the independence for Israelites.
The verse "therefore in that day they will know..."(v. 6) is meant to show that it is God who gave them liberation and that God is the true Lord of history. We should continue to pray for people of Korea and the nation of Korea as we put our trust in God, believing that God will bring about true liberation even in the midst of a whirlwind like international politic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6

March 화 Tue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He Took Up
Our Pain and Bore
Our Suffering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53장

새93장(통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종의 노래 중에 마지막 편에 해당하며 이스라엘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 자신들의 고난의 역사를 보았고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하는 본문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사야 53:1-11

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게 나타났느냐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
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
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
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
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
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
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
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
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
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
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
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
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
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Reading insight

Today's text is the last of the Servant Songs that appear in the Book of Isaiah. Israelites identified the suffering servant with their own suffering and Christians have long viewed this text as one that predicts the suffering and death of Jesus Christ.

Isaiah 53:1–11

1 Who has believed what he has heard from us? And to whom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2 For he grew up before him like a young plant, and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he had no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and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3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as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4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yet we esteemed him stricken, smitten by God, and afflicted.

5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upon him was the chastisement that brought us peace,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6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every one--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7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like a lamb that is led to the slaughter, and like a sheep that before its shearers is silent, so he opened not his mouth.

8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as for his generation, who considered that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stricken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9 And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there was no deceit in his mouth.

10 Yet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he has put him to grief; when his soul makes an offering for guilt, he shall see his offspring; he shall prolong his days; the will of the LORD shall prosper in his hand.

11 Out of the anguish of his soul he shall see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shall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make many to be accounted righteous, and he shall bear their iniquiti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종의 외형적인 모습과 육신의 상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2-3절)
How is the outer appearance of the servant described? (53: 2-3)

종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4-5절)
Why is the servant suffering? (53:4-5)

종이 무자비한 고문과 폭력 앞에서 보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7절)
What is the servant's reaction in face of the oppression and affliction? (53: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김응용(MI)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 유준식(M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그가 찔림은
He Was Pierced For...

아마도 오늘의 본문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장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군대에 의해 끌려가 매질과 고문을 당하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했던 예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 고난을 선택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고통과 질곡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2천 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서 감옥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웃과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전 세계 각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들입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됩시다.

Today's text is probably the most well known chapter in the Book of Isaiah. Through the years, Christians have identified the suffering servant described in Isaiah Chapter 53 with suffering Jesus. In Jesus who was taken away by chief priests and Roman soldiers to be beaten, tortured and crucified on the hills of Calvary, Christians saw the Lamb of God who suffered for their sins as described in Isaiah Chapter 53.
Jews saw their history that is full of suffering in the suffering servant described in Isaiah. It is very likely that many Christians who suffered all kinds of oppression and affliction in places like the Lion's den and in prisons throughout its 2000 years history for the sake of their faith found comfort in remembering the suffering servant in Isaiah.
Even today, there are still many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ho are suffering in order to serve their neighbor, their country and to realize God's Kingdom here on earth. They are the true suffering servants of God. I invite you to remember God's suffering servants today and lift them up in your prayer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7

March 수 Wed

너는 노래할 지어다

Sing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54장

새270장(통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4:1-10

1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3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4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
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
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6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
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
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
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
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
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10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
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
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Reading insight

God's promises do not change. Even if time passed and heaven and earth changed, God remembered the promise He made to Abraham and Noah.

Isaiah 54:1–10

1 "Sing, O barren one, who did not bear; break forth into singing and cry aloud, you who have not been in labor! For the children of the desolate one will be more than the children of her who is married," says the LORD.

2 "Enlarge the place of your tent, and let the curtains of your habitations be stretched out; do not hold back; lengthen your cords and strengthen your stakes.

3 For you will spread abroad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nd your offspring will possess the nations and will people the desolate cities.

4 "Fear not, for you will not be ashamed; be not confounded, for you will not be disgraced; for you will forget the shame of your youth, and the reproach of your widowhood you will remember no more.

5 For your Maker is your husband, the LORD of hosts is his name; and the Holy One of Israel is your Redeemer, the God of the whole earth he is called.

6 For the LORD has called you like a wife deserted and grieved in spirit, like a wife of youth when she is cast off, says your God.

7 For a brief moment I deserted you, but with great compassion I will gather you.

8 In overflowing anger for a moment I hid my face from you, but with everlasting love I will have compassion on you," says the LORD, your Redeemer.

9 "This is like the days of Noah to me: as I swore that the waters of Noah should no more go over the earth, so I have sworn that I will not be angry with you, and will not rebuke you.

10 For the mountains may depart and the hills be removed, but my steadfast love shall not depart from you, and my covenant of peace shall not be removed," says the LORD, who has compassion on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절)
Today's text compares the status of Israelites to what? (54:1)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6–7절)
What is God's promise to the forsaken nation of Israel? (54:6–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 손용억(MN)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 윤국진(MN)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구약성서에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여인에 비유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대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자녀의 출산이 여성의 책임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여성의 크나큰 수치와 불명예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여 버림받은 여인에 비유합니다. 그로 인해 감당해야 했던 수치와 모욕이 이제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 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이 자녀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자손이 좌우로 퍼져 나가고 여러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다시 기억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오랜 노예생활로 민족의 명맥이 끊어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버림받은 여인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실 것이며 더 이상 어떤 수치와 모욕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The Old Testament often compares the nation of Israel to a woman. In ancient society, the most important role for women was to give birth and raise children. A woman's inability to give birth was considered a great shame and dishonor even though it might not be her fault.
Today's text compares Israel to an abandoned woman because she could not give birth to children. The shame and insults that she had to endure will now turn into joy. She will have more children than a woman with a husband. It is said that his descendants will spread far and occupy many countries. This is also a reminder of the wonderful things that God did long ago for Abraham and Sarah. The God of Abraham promised to grant the same blessings to Abraham's descendants, whose nation was cut off by prolonged slavery.
God said that Israel, like an outcast woman, will be married again, and that she will no longer face any shame or insult. Like the Israelites, today I ask you to count on God's promise of restorat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8

March 목 Thu

너희 목마른 자들아

All you
who are thirsty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55장

새412장(통469장)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데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은혜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이사야 55:1-11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
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
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
으리라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
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
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니라
4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
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
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
실 때에 그를 부르라
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
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
하시리라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
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0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
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
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Reading insight

Grace is what we receive freely. Even though I do not pay the price, God gives it for free. We live in grace. Today's Word is a free invitation to God's grace.

Isaiah 55:1–11

1 "Come, everyone who thirsts, come to the waters; and he who has no money, come, buy and eat!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and without price.

2 Why do you spend your money for that which is not bread, and your labor for that which does not satisfy? Listen diligently to me, and eat what is good, and delight yourselves in rich food.

3 Incline your ear, and come to me; hear, that your soul may live; and I will make with you an everlasting covenant, my steadfast, sure love for David.

4 Behold, I made him a witness to the peoples, a leader and commander for the peoples.

5 Behold, you shall call a nation that you do not know, and a nation that did not know you shall run to you, because of the LORD your God, and of the Holy One of Israel, for he has glorified you.

6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7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let him return to the LORD, that he may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8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9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10 "For as the rain and the snow come down from heaven and do not return there but water the earth, making it bring forth and sprout, giving seed to the sower and bread to the eater,

11 so shall my word be that goes out from my mouth; it shall not return to me empty, but it shall accomplish that which I purpose, and shall succeed in the thing for which I sent i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청은 어떤 것입니까?
What is God's invitation in verse 1?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2절)
What is the unfortunate reality of humans? (55: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 백성범(MN)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명균(MO)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은혜로의 초대
Invitation to God's grace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누구든 와서 값을 지불하지 말고 먹으라. 참으로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물 한 병도 돈을 지불하고 사 먹어야 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무료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 무료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사유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값없이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며 헛된 것들을 위해 값을 지불했습니다.
내게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초청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제약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열린 초청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와서 거저 얻어 가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은혜로의 초청에 응답하는 일뿐입니다.

Anyone who is thirsty or without money come and eat without paying. It is a truly unconventional declaration. This is unimaginable in a capitalist world, where even a bottle of water has to be bought and paid for. But, in fact, these words are not false. The most important things we need to survive are already provided by God to us for free through nature. We are all living under God's grace. Man privatizes what God has provided freely and graciously and makes it impossible for all to enjoy it freely. As a result, we must constantly labor and struggle to eat and drink.
More importantly, we pay for things we are not satisfied with. The Israelites left God to serve idols and foreign gods, paying for vain things. God's invitation for them to return is an invitation to a relationship with God. It is an invitation to a new and different relationship. It's not just for the few chosen people. It is an invitation that is open to everyone without restriction. This is grace. This is the great invitation from God that you all come and receive freely, whether you are poor or rich, weak or strong. All we have to do is respond to this invitation of gra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9

March 금 Fri

만민이 기도하는 집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56장

새507장(통273장)
저 북방 얼음 산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이사야 56:1-8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2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3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Reading insight

Israel is different before and after Babylonian captivity. Isaiah proclaims that the new Israel, which God will establish after the Babylonian captivity, is open to all Gentiles as well. This is a revolutionary declaration for the Israelites, who had fallen into the proud mentality of the chosen people.

Isaiah 56:1-8

1 Thus says the LORD: "Keep justice, and do righteousness,
for soon my salvation will come, and my deliverance be re-
vealed.

2 Blessed is the man who does this, and the son of man who
holds it fast, who keeps the Sabbath, not profaning it, and
keeps his hand from doing any evil."

3 Let not the foreigner who has joined himself to the LORD
say, "The LORD will surely separate me from his people";
and let not the eunuch say, "Behold, I am a dry tree."

4 For thus says the LORD: "To the eunuchs who keep my
Sabbaths, who choose the things that please me and hold fast
my covenant,

5 I will give in my house and within my walls a monument
and a name better than sons and daughters; I will give them
an everlasting name that shall not be cut off.

6 "And the foreigners who join themselves to the LORD, to
minister to him, to love the name of the LORD, and to be his
servants, everyone who keeps the Sabbath and does not pro-
fane it, and holds fast my covenant--

7 these I will bring to my holy mountain, and make them joy-
ful in my house of prayer; their burnt offerings and their sac-
rifices will be accepted on my altar; for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peoples."

8 The Lord GOD, who gathers the outcasts of Israel, de-
clares, "I will gather yet others to him besides those already
gather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의 자격과 조건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5절)
How does God speak of the qualifications and conditions of those who want to become God's people? (56:3-5)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7절)
What does the phrase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mean? (56: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서준석(NC)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우일(N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백성의 자격
Qualification of God's people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배타적인 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언어와 국경으로 배타적인 울타리를 치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더욱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십니다. 다인종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The Israelites have a strong self-pride that they are the chosen people of God. This has sometimes been a factor in establishing an exclusive relationship with other races.
God wants to establish a new Israel through the prophecy of Isaiah. New Israel, which God will establish, transcends nations and borders. God does not want to build exclusive fences to divide people by race, language, and borders. God says that even if they are foreigners, those who keep God's covenant are God's servants and people.
The words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are God's invitation to all nations and races. The house of God is wide open to anyone who wants to serve and worship God. In response to God's invitation, we who are Gentiles become God's people. And God wants us to open more doors to the world. This is a significant message for us living in a multiracial country to hear.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0

March 토 Sat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I will heal them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57장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모든 악함의 근원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의 삶은 악행과 고통뿐입니다. 57장은 인간 세상의 악함에 대한 고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넘어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7:14-21

14 그가 말하기를 돋우고 돋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15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16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
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17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18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
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
시 얻게 하리라

19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
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
리라 하셨느니라

20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
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
느니라

Reading insight

Not fearing God is the source of all evil, and the lives of those who live apart from God are filled with evil and suffering. Chapter 57 begins with an accusation of the wickedness of the human world. However, the merciful God promises us healing beyond our suffering.

Isaiah 57:14–21

14 And it shall be said, "Build up, build up, prepare the way, remove every obstruction from my people's way."

15 For thus says the One who is high and lifted up, who inhabits eternity, whose name is Holy: "I dwell in the high and holy place, and also with him who is of a contrite and lowly spirit, to revive the spirit of the lowly, and to revive the heart of the contrite.

16 For I will not contend forever, nor will I always be angry; for the spirit would grow faint before me, and the breath of life that I made.

17 Because of the iniquity of his unjust gain I was angry, I struck him; I hid my face and was angry, but he went on backsliding in the way of his own heart.

18 I have seen his ways, but I will heal him; I will lead him and restore comfort to him and his mourners,

19 creating the fruit of the lips. Peace, peace, to the far and to the near," says the LORD, "and I will heal him.

20 But the wicked are like the tossing sea; for it cannot be quiet, and its waters toss up mire and dirt.

21 There is no peace," says my God, "for the wick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허물 많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What is God's promise to vulnerable human beings?

악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What is not allowed for the wicked? (57:2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임종선(NH)
가득한교회, 이강(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There is no peace for the wicked

사람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었던 그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절대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넘보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고자 사랑하는 자신의 동료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고쳐 주시겠다 하십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힐링은 회개를 통해 옵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드러낼 줄 아는 용기와 회개가 치유를 가져오고 그 치유의 결과는 평화입니다.

Everyone has problems. No one in this world is perfect. Like the saying that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everyone before God. So the Bible does not hesitate to say that everyone is a sinner. But there is one thing that makes a critical difference. It is the courage to know how to repent.

We remember David. The strongest and most respected king in Israel's history, he made the biggest mistake in his life. He coveted and did what no one should do. He killed his beloved colleague to cover up his crime. Nevertheless, he was forgiven because he was a person who knew how to repent.

Through today's text, God speaks clearly. No matter how many problems there are, God will restore. Nowadays people say a lot about healing. The healing that God provides comes through repentance. The courage and repentance to reveal one's sins and transgressions bring healing, and the result of that healing is pea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1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김덕신 목사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 펜실베이니아)

평안하신지요?

마가복음 15장(15:1-15)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2절)가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말을 통해 가려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진리가 가려지고 (1절) 거짓된 고발과 모함으로 진리가 가려지고 (3절) 불법과 무지로 진리가 가려지고 (6절) 시기로 진리가 가려지고 (9절) 억지와 충동으로 진리가 가려지고 (11절) 떼를 지어 덤벼드는 큰 소리로 진리가 가려지고 (13-14절) 자기 유익을 위해 진리가 가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15절).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정신을 차릴 것은 언제든, 어느 때든 진리(예수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으로도 가려져선 안됩니다. 그날 많은 소리와 많은 주장과 많은 결정이 있었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2절)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날 거기 흥분한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잠잠히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잔잔한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자기 소리가 크니 누구도 그 진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로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린 지금 무섭고 어려운 재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처처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 동료 목사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열정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소리로 진리가 가려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대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소리로 살기 원합니다.

22

March 월 Mon

즐겁고 존귀한 날

A pleasant and honorable day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58장

새337장(통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성경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안식일이 주는 교훈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 말합니다.

이사야 58:3-10, 13-14

3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
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
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
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
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
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
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
될 날이라 하겠느냐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
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
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
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
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
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
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3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
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
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
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
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Reading insight

The Bible takes the Sabbath very seriously. We do not observe the Sabbath these days, but the lessons of the Sabbath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saiah speaks of the true meaning of the Sabbath in today's text.

Isaiah 58:3–10, 13–14

3 'Why have we fasted, and you see it not? Why have we humbled ourselves, and you take no knowledge of it?' Behold, in the day of your fast you seek your own pleasure, and oppress all your workers.

4 Behold, you fast only to quarrel and to fight and to hit with a wicked fist. Fasting like yours this day will not make your voice to be heard on high.

5 Is such the fast that I choose, a day for a person to humble himself? Is it to bow down his head like a reed, and to spread sackcloth and ashes under him? Will you call this a fast, and a day acceptable to the LORD?

6 "Is not this the fast that I choose: to loose the bonds of wickedness, to undo the straps of the yoke,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and to break every yoke?

7 Is it not to share your bread with the hungry and bring the homeless poor into your house; when you see the naked, to cover him, and not to hide yourself from your own flesh?

8 Then shall your light break forth like the dawn, and your healing shall spring up speedily; your righteousness shall go before you;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your rear guard.

9 Then you shall call, and the LORD will answer; you shall cry, and he will say, 'Here I am.' If you take away the yoke from your midst, the pointing of the finger, and speaking wickedness,

10 if you pour yourself out for the hungry and satisfy the desire of the afflicted, then shall your light rise in the darkness and your gloom be as the noonday.

13 "If you turn back your foot from the Sabbath, from doing your pleasure on my holy day, and call the Sabbath a delight and the holy day of the LORD honorable; if you honor it, not going your own ways, or seeking your own pleasure, or talking idly;

14 then you shall take delight in the LORD, and I will make you ride on the heights of the earth; I will feed you with the heritage of Jacob your father,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안식일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출 16:23, 20:9–11)
How does Moses explain the Sabbath? (Exod. 16:23, 20:9–11)

이사야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13절)
How does Isaiah instruct the Israelites to keep the Sabbath? (58:1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보리연합감리교회, 왕태건(NJ)
그레이스-베델연합감리교회, 장학범(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안식일에 대하여
The Sabbath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이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레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을 경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을 성서로 인정한다면 최소한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못할지 언정 그 율법과 계명들에 담긴 의미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가장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쉼을 명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쉼을 보장받지 못하고 애굽에서 기나긴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한 모든 노예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안식은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교회에 가서 너무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에 불필요한 일로 분주하지 않으며 쉼을 얻고 다른 사람과 쉼을 함께 나누어 서로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Since the days of the early church, believers have gathered and broken bread on Sunday instead of the Sabbath day. As a result, Christians naturally disregard the Old Testament Sabbath rules. If we accept the Old Testament as the Word of God, we should remember the meanings of those laws and commandments and apply them to our lives, even though we may not literally keep the Old Testament laws.
The simplest expression to describe the Sabbath would be "rest". God worked for six days, rested on the seventh day, and commanded all creation to rest. The Sabbath would have a special meaning to the Israelites who were not guaranteed proper rest and lived a long life of slavery in Egypt. Therefore, God specified that the Sabbath law should be applied equally to all slaves belonging to the nation of Israel.
Sabbath is not about church attendance on Sunday. Spending too much busy time in church on Sunday is a violation of the spirit of the Sabbath. But going to church and doing nothing is also not observing the Sabbath. Keeping the Sabbath means not being busy with unnecessary things on the Sabbath day and to gain rest and share peace with others to restore each other's soul and bod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3

March 화 Tue

오직 너희 죄악이

Because of your sins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59장

새278장(통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한번 어그러진 인간관계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상적인 대화조차 힘들어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59:1-8, 20-21

1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4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5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6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7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8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2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Reading insight

It is not easy to restore a relationship once it has been broken. When some people lose trust in each other, even carrying on a normal conversation becomes difficult. How is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aiah 59:1–8, 20–21

1 Behold, the LORD's hand is not shortened, that it cannot
save, or his ear dull, that it cannot hear;
2 but your iniquities have made a separation between you
and your God, an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does not hear.
3 For your hands are defiled with blood and your fingers
with iniquity; your lips have spoken lies; your tongue mut-
ters wickedness.
4 No one enters suit justly; no one goes to law honestly; they
rely on empty pleas, they speak lies, they conceive mischief
and give birth to iniquity.
5 They hatch adders' eggs; they weave the spider's web; he
who eats their eggs dies, and from one that is crushed a viper
is hatched.
6 Their webs will not serve as clothing; men will not cover
themselves with what they make. Their works are works of
iniquity, and deeds of violence are in their hands.
7 Their feet run to evil, and they are swift to shed innocent
blood; their thoughts are thoughts of iniquity; desolation and
destruction are in their highways.
8 The way of peace they do not know, and there is no justice
in their paths; they have made their roads crooked; no one
who treads on them knows peace.
20 "And a Redeemer will come to Zion, to those in Jacob
who turn from transgression," declares the LORD.
21 "And as for me, this is my covenant with them," says the
LORD: "My Spirit that is upon you, and my words that I
have put in your mouth, shall not depart out of your mouth,
or out of the mouth of your offspring, or out of the mouth of
your children's offspring," says the LORD,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1-2절)
How does Isaiah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the Israelites? (59:1-2)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4-7절)
How did the Israelites disappoint God? (59:4-7)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20-21절)
What is God's promise to Israel? (59:20-2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박태열(NJ)
뉴그레이스교회, 전영철(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It's not too late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성서에서 혼인관계로 자주 비유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른 부부를 연상시킵니다.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어선 부부관계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생겼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혼인관계는 깨어지고 회복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언제나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입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the Israelites is often compared to marriage in the Bible. Today's text is reminiscent of a couple whose marriage relationship has ended. Even though a couple was once able to maintain a beautiful marriage, they crossed "the River of No Return" and a deep gap between Israel and God was created. It is said that sin has separated God and the people.
Human relationships and marital relationships can be broken and sometimes difficult to restore, but the relationship with God is different. Although our sins are blocking our relationship with God, God always promises forgiveness and restoration to those who confess their sins. It's not too late. It is said that the time when you think it is too late may be the best opportunity. This time is the best time to start a new relationship with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4

March 수 Wed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The glory of the Lord rises to shine on you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60장

새84장(통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역사는 진보한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 팬데믹, 인종차별, 환경 위기로 인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깊은 어둠을 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이사야 60:1-9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
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
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
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6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
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
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8 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9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
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
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
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Reading insight

It is good to live with the belief that history progresses. However, looking at our reality, I think this may not be true. Let's meditate on what our mission is as we see the deep darkness that is covering the whole world due to viral pandemics, racism, and environmental crisis.

Isaiah 60:1-9

1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has risen upon you.

2 For behold, darkness shall cover the earth, and thick darkness the peoples; but the LORD will arise upon you, and his glory will be seen upon you.

3 And nations shall come to your light, and kings to the brightness of your rising.

4 Lift up your eyes all around, and see; they all gather together, they come to you; your sons shall come from afar, and your daughters shall be carried on the hip.

5 Then you shall see and be radiant; your heart shall thrill and exult, because the abundance of the sea shall be turned to you, the wealth of the nations shall come to you.

6 A multitude of camels shall cover you, the young camels of Midian and Ephah; all those from Sheba shall come. They shall bring gold and frankincense, and shall bring good news, the praises of the LORD.

7 All the flocks of Kedar shall be gathered to you; the rams of Nebaioth shall minister to you; they shall come up with acceptance on my altar, and I will beautify my beautiful house.

8 Who are these that fly like a cloud, and like doves to their windows?

9 For the coastlands shall hope for me, the ships of Tarshish first, to bring your children from afar, their silver and gold with them, for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and for the Holy One of Israel, because he has made you beautifu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
What does Isaiah say was the mission given to Israel? (60:1)

이사야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합니까? (2-4절)
What does Isaiah say will happen to Israel? (60:2-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져지연합교회, 고한승(NJ)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애(NJ)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놀라운 영광의 날을 선포합니다. 나라를 잃은 설움, 바벨론에서의 길고 긴 포로생활은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온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을 비춥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하여 보아야 할 것은 이 빛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추시어 이스라엘이 그 빛을 온 세계에 비추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의 역할을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전달자일 뿐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빛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지 점검합시다.

Today Isaiah proclaims a wonderful day of God's glory for the Israelites. The sadness of losing the country and the long captivity in Babylon were times of darkness. Now, the light of God who will defeat the forces of darkness that have been covering the whole earth shines on the people. One thing we should keep in mind here is that this light first comes upon Israel. God is shining His light on the people of Israel so that Israel can shine it all over the world.
The message to "arise and shine" makes it clear that the mission has been given of receiving the light of God and acting as a reflector to the world. It means that we are not the light and the savior, but only the messenger. Let's live a life that becomes light for where it is needed and for those who need it today. To do that, let's first check whether there is the light of God within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5

March 목 Thu

주의 영이 임하시면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is upon me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61장

새323장(통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몸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사야 61:1-9

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5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6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7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9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Reading insight

There are countless people in this world. Have you ever wondered why God called you among so many people?

Isaiah 61:1-9

1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the opening of the prison to those who are bound;

2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to comfort all who mourn;

3 to grant to those who mourn in Zion-- to give them a beautiful headdress instead of ashes, the oil of gladness instead of mourning, the garment of praise instead of a faint spirit; that they may be called oaks of righteousness, the planting of the LORD, that he may be glorified.

4 They shall build up the ancient ruins; they shall raise up the former devastations; they shall repair the ruined cities, the devastations of many generations.

5 Strangers shall stand and tend your flocks; foreigners shall be your plowmen and vinedressers;

6 but you shall be called the priests of the LORD; they shall speak of you as the ministers of our God; you shall eat the wealth of the nations, and in their glory you shall boast.

7 Instead of your shame there shall be a double portion; instead of dishonor they shall rejoice in their lot; therefore in their land they shall possess a double portion; they shall have everlasting joy.

8 For I the LORD love justice; I hate robbery and wrong; I will faithfully give them their recompense, and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them.

9 Their offspring shall be known among the nations, and their descendants in the midst of the peoples; all who see them shall acknowledge them, that they are an offspring the LORD has bless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사야 61장 1-2절과 누가복음 4장 16-21절을 비교하며 읽어 봅시다. 어떻게 같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Compare Isaiah 61:1-2 to Luke 4:16-21. How are they the same and how are they different?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새로운 직분은 어떤 것입니까? (6절)
What new position was given to Israel? (61: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린허스트 영광한인교회, 임희영(NJ)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 정호석(NJ)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God who calls and sends us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펼쳐 읽게 한 구약성경이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명과 사역을 정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빌려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치유하며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와 예수님의 사명선언(Mission statement)은 바로 우리들의 사명(calling)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사야와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치유하며 기쁘고 복된 소식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치유의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해방이 선포되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 of today's text is a passage that we are familiar with. The Old Testament that Jesus read at the synagogue in his hometown of Nazareth are the words of Isaiah 61. Jesus defined His mission and ministry through the words of the prophet Isaiah.
Jesus used Isaiah's words to say that he was called to bring the good news to the poor, heal the wounded, and proclaim that captives will be released. The mission statement of Isaiah and Jesus is also our calling. We are participating in the divine mission of Isaiah and Jesus, transcending thousands of years of time and space.
The word "church" (ecclesia) means that you are called out of the world. We are the ones called by God to heal this world and proclaim the Good News. Please meditate on who needs the message of healing most and where liberation should be proclaimed in our da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6

March 금 Fri

너를 기뻐 하시리라

The Lord delights in you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62장

새428장(통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별명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건 말건 사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사야 62:1-12

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 같
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
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
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쁄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
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
시리라
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8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
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1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
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Reading insight

No one chooses his or her name at birth. Names are given unilaterally by parents regardless of that child's wish. Nicknames are the same. They are given unilaterally by others whether that person likes it or not. In today's text, God says he will give Israel a new name.

Isaiah 62:1–12

1 For Zion's sake I will not keep silent, and for Jerusalem's
sake I will not be quiet, until her righteousness goes forth as
brightness, and her salvation as a burning torch.
2 The nations shall see your righteousness, and all the kings
your glory, and you shall be called by a new name that the
mouth of the LORD will give.
3 You shall be a crown of beauty in the hand of the LORD,
and a royal diadem in the hand of your God.
4 You shall no more be termed Forsaken, and your land shall
no more be termed Desolate, but you shall be called My De-
light Is in Her, and your land Married; for the LORD de-
lights in you, and your land shall be married.
5 For as a young man marries a young woman, so shall your
sons marry you, and as the bridegroom rejoices over the
bride, so shall your God rejoice over you.
6 On your walls, O Jerusalem, I have set watchmen; all the
day and all the night they shall never be silent. You who put
the LORD in remembrance, take no rest,
7 and give him no rest until he establishes Jerusalem and
makes it a praise in the earth.
8 The LORD has sworn by his right hand and by his mighty
arm: "I will not again give your grain to be food for your en-
emies, and foreigners shall not drink your wine for which
you have labored;
9 but those who garner it shall eat it and praise the LORD,
and those who gather it shall drink it in the courts of my
sanctuary."
10 Go through, go through the gates; prepare the way for the
people; build up, build up the highway; clear it of stones; lift
up a signal over the peoples.
11 Behold, the LORD has proclaimed to the end of the earth:
Say to the daughter of Zion, "Behold, your salvation comes;
behold, his reward is with him, and his recompense before
him."
12 And they shall be called The Holy People, The Redeemed
of the LORD; and you shall be called Sought Out, A City
Not Forsake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은 과거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웠으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까?
(4절, 12절)
By what name Israel was called in the past, and by what name does God now call them? (62:4, 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모리스타운한인교회, 지동규(NJ)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이기성(NJ)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새 이름으로 불리우리니
You will be called by a new name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다른 민족들에게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아 그들이 어떻게 불리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여인, 버림받은 땅이라 불렸다 합니다. 참으로 듣기 거북한 말,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자식이 없는 여인처럼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황무지로 불리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늘에 버림받은 존재로 불릴 만큼 그들의 역사는 고난과 절망의 역사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짧은 황금기를 거쳐 수백 년 동안 남북으로 나뉘었고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각각 앗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여인이라 불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불릴 것이라 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불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Israel has long been the subject of ridicule and teasing by other nations. Looking at today's text, you can guess what they were called. They had been called the Abandoned One, the Abandoned Woman, and the Abandoned Land. A shameful name is truly uncomfortable to hear. Would you have heard such a name?
Like a woman who was abandoned by her husband, Israel was abandoned by God. Their land was called a wasteland that produced nothing like a woman without children. Their history was one of suffering and despair, so that they were appropriately called a nation abandoned by humans and heaven. After the brief golden period of David and Solomon, Israel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for hundreds of years, crushed by the great powers, and eventually destroyed by the Assyrian and Babylonian empires.
Now God makes a wonderful declaration to them. They will not be called outcast women, but beloved women. They will be called a holy people who have been chosen by God. This promise is also given to us. In Christ, we are newly called children of light, not children of darkness nor servants, but children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7

March 토 Sat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In all their suffering he also suffered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63장

새438장(통495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복음성가)
얼마나 아프실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내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를 위해 울어줄 누군가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바로 그런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3:7-14

7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8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10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11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2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4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Reading insight

Do you have someone to cry with you during the stressful and painful moments of your life? If you do, then you are a happy person. Isaiah says we are those blessed people because we have someone.

Isaiah 63:7–14

7 I will recount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the praises of the LORD, according to all that the LORD has granted us, and the great goodness to the house of Israel that he has granted them according to his compassion, according to the abundance of his steadfast love.

8 For he said, "Surely they are my people, children who will not deal falsely." And he became their Savior.

9 In all their affliction he was afflicted, and the angel of his presence saved them; in his love and in his pity he redeemed them; he lifted them up and carried them all the days of old.

10 But they rebelled and grieved his Holy Spirit; therefore he turned to be their enemy, and himself fought against them.

11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and his people. Where is he who brought them up out of the sea with the shepherds of his flock? Where is he who put in the midst of them his Holy Spirit,

12 who caused his glorious arm to go at the right hand of Moses, who divided the waters before them to make for himself an everlasting name,

13 who led them through the depths? Like a horse in the desert, they did not stumble.

14 Like livestock that go down into the valley, the Spirit of the LORD gave them rest. So you led your people, to make for yourself a glorious na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What news is Isaiah trying to convey to the Israelites? (63:7)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어떤 것입니까? (9절, 14절)
What was the wonderful grace of God to the suffering Israelites? (63:9, 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콜라연합감리교회, 안명훈(NJ)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 조민호(NJ)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God who participates in our suffering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또다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신 것이 아닌지 한탄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는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배신하였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계셨고 안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눈물로 회초리를 들지라도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함께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n today's passage, Isaiah once again remembers the wonderful work God has done for Israel. He remembers God who brought the Israelites out of slavery in Egypt through God's servant Moses. The Israelites, again enslaved by Babylon, lament that the God who freed them from Egypt has now forgotten them.
But Isaiah gives a wonderful testimony that God suffered with them in their sufferings. When they forgot and betrayed God, He punished them using the Gentiles, but nevertheless, says Isaiah, He embraced them with love and compassion.
In this image of God, we see a parent's love for their children. We find the love of a parent who is hurt and sorrowful when He disciplines His blameworthy children. I hope that no matter what pain or suffering you may go through, God will not forsake you. Remember God who participates in your distres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8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호산나!

이상현 목사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CA)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막 11:4-10)"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유토피아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낙원을 뜻한다면, 디스토피아는 그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곳을 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겐 바로 지금 그들의 상황이 디스토피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스토피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떠올

리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을 실물로 영접하여 기뻐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환호가 떠오르시나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다고 하니,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와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스포츠 영웅들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니까, 종려주일을 보내면서도 흥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시 읽으며 그 당시에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의 환희와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의 안타까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호산나 (Hosanna)"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살려달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유일하게 내뱉는 말이 바로 "살려주세요 (Help me!)"입니다. 사실은,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함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정권 하에서 식민 지배를 받고 살면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또 정신으로 이미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을 구할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조건 살려달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선 그들의 "호산나"는 기쁨의 함성이 아니라, 처절한 절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쉽지 않다 보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는 것도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며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9

March 월 Mon

우리는 진흙이요

We are the clay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64장

새527장(통317장)
어서 돌아오오

(복음성가) 항상 진실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사야 64:1-12

1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 불이 섶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4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
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5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
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
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6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
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
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8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
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10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
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12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
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Reading insight

A wise person clearly recognizes his mistakes and misconduct. In today's text, Isaiah reminds us again why the people of Israel suffered.

Isaiah 64:1-12

1 Oh that you would rend the heavens and come down, that the mountains might quake at your presence--

2 as when fire kindles brushwood and the fire causes water to boil-- to make your name known to your adversaries, and that the nations might tremble at your presence!

3 When you did awesome things that we did not look for, you came down, the mountains quaked at your presence.

4 From of old no one has heard or perceived by the ear, no eye has seen a God besides you, who acts for those who wait for him.

5 You meet him who joyfully works righteousness, those who remember you in your ways. Behold, you were angry, and we sinned; in our sins we have been a long time, and shall we be saved?

6 We have all become like one who is unclean, and all our righteous deeds are like a polluted garment. We all fade like a leaf, and our iniquities, like the wind, take us away.

7 There is no one who calls upon your name, who rouses himself to take hold of you; for you have hidden your face from us, and have made us melt in the hand of our iniquities.

8 But now, O LORD, you are our Father; we are the clay, and you are our potter; we are all the work of your hand.

9 Be not so terribly angry, O LORD, and remember not iniquity forever. Behold, please look, we are all your people.

10 Your holy cities have become a wilderness; Zion has become a wilderness, Jerusalem a desolation.

11 Our holy and beautiful house, where our fathers praised you, has been burned by fire, and all our pleasant places have become ruins.

12 Will you restrain yourself at these things, O LORD? Will you keep silent, and afflict us so terribl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What kind of person did the Lord welcome, and why was he angry with Israel? (64:5)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말합니까? (8절)
How does Isaiah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Israel and God? (64: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제자교회, 이영기(NJ)
주님의 은혜교회, 최준호(NJ)
목회자를 위한 기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God is the potter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를 받은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그들의 오랜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려는 사람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셨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과로 인해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과 성읍들은 황폐하여졌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주님께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영원히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원합니다. 그가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시는 토기장이라고 말합니다. 짓뭉개진 진흙 덩어리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빚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부서지고 망가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Isaiah clarifies why the nation of Israel was disciplined. The Lord was angry with them because of their long-standing sins. He says that God hid His face from them because no one called the name of the Lord and no one wanted to depend on Him. Because of their sins, the temple was burned and Jerusalem and the cities were destroyed.
Isaiah now pleads with the Lord to take back His wrath against Israel. He pleads for God to have mercy and not to hold their sins in His heart forever. The reason he can make such a request is because God is the father of Israel. Parents never stop loving their children. He also says that God is the potter who molds them. He asks God to reshape Israel like crushed clay and restore it to a new creation.
As we begin the Passion Week, let us humbly come before God who has the power to make us new and beautiful.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30

March 화 Tue

내가 여기 있노라

Here I am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65장

새535장(통325장)
주 예수 대문밖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65:1-9

1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2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3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4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5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6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7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Reading insight

Today's text shows us God's regretful heart toward Israel who left God.

Isaiah 65:1-9

1 I was ready to be sought by those who did not ask for me; I
was ready to be found by those who did not seek me. I said,
"Here am I, here am I," to a nation that was not called by my
name.

2 I spread out my hands all the day to a rebellious people,
who walk in a way that is not good, following their own de-
vices;

3 a people who provoke me to my face continually, sacrific-
ing in gardens and making offerings on bricks;

4 who sit in tombs, and spend the night in secret places; who
eat pig's flesh, and broth of tainted meat is in their vessels;

5 who say, "Keep to yourself, do not come near me, for I am
too holy for you." These are a smoke in my nostrils, a fire
that burns all the day.

6 Behold, it is written before me: "I will not keep silent, but I
will repay; I will indeed repay into their bosom

7 both your iniquities and your fathers' iniquities together,
says the LORD; because they made offerings on the moun-
tains and insulted me on the hills, I will measure into their
bosom payment for their former deeds."

8 Thus says the LORD: "As the new wine is found in the
cluster, and they say, 'Do not destroy it, for there is a bless-
ing in it,' so I will do for my servants' sake, and not destroy
them all.

9 I will bring forth offspring from Jacob, and from Judah
possessors of my mountains; my chosen shall possess it, and
my servants shall dwell ther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Why did Israel not come to God? (65:1)

이스라엘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3-4절)
What did the people of Israel do instead of seeking God? (65:3-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체리힐제일교회, 김일영(NJ)
코너스톤교회, 정희섭(NJ)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No one was looking for me

오늘 이사야 6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찾으면 만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강변하십니다. 제멋대로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나게 합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돼지 먹이로 굶주린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집으로 행할 때 아버지는 매일 집 밖에 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합시다.

Isaiah 65 says that God is always ready to answer Israel's prayers. God is ready to meet anyone who seeks Him, but He pleads that no one has been looking for Him. It is said that God has open arms all day long for the people who have chosen the wrong way.
These words remind us of Jesus' parable of the prodigal son. The foolish son left his father's house and used up all his fortune and ended up filling his hungry stomach with pig food. He finally decided to return to his father's house and took off for home. Father, outside his house, was waiting anxiously for his son everyday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n his son would return.
This is God's love. When we remember the suffering of the Lord today, let us meditate on the heart of the Father who seeks us first before we call on that nam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31

March 수 Wed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What displeases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66장

새312장(통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매 주일 교회에 나갑니다. 한국 교인들처럼 예배에 많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민족이 없는듯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들어 봅시다.

이사야 66:1-10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
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
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3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
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
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
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5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
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
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6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 오며 목소리가 성전
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
시는 목소리로다
7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8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
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
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
을 순산하였도다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
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
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10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
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
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Reading insight

We go to church every Sunday to worship God. There seems to be no other group who spends as much time and effort in worship like Koreans do. But is our worship really what God really wants? Let's hear what Isaiah is saying to us today.

Isaiah 66:1–10

1 Thus says the LORD: "Heaven is my throne, and the earth
is my footstool; what is the house that you would build for
me, and what is the place of my rest?

2 All these things my hand has made, and so all these things
came to be, declares the LORD. But this is the one to whom
I will look: he who is humble and contrite in spirit and trem-
bles at my word.

3 "He who slaughters an ox is like one who kills a man; he
who sacrifices a lamb, like one who breaks a dog's neck;
he who presents a grain offering, like one who offers pig's
blood; he who makes a memorial offering of frankincense,
like one who blesses an idol. These have chosen their own
ways, and their soul delights in their abominations;

4 I also will choose harsh treatment for them and bring their
fears upon them, because when I called, no one answered,
when I spoke, they did not listen; but they did what was evil
in my eyes and chose that in which I did not delight."

5 Hear the word of the LORD, you who tremble at his word:
"Your brothers who hate you and cast you out for my name's
sake have said, 'Let the LORD be glorified, that we may see
your joy'; but it is they who shall be put to shame.

6 "The sound of an uproar from the city! A sound from the
temple! The sound of the LORD, rendering recompense to
his enemies!

7 "Before she was in labor she gave birth; before her pain
came upon her she delivered a son.

8 Who has heard such a thing? Who has seen such things?
Shall a land be born in one day? Shall a nation be brought
forth in one moment? For as soon as Zion was in labor she
brought forth her children.

9 Shall I bring to the point of birth and not cause to bring
forth?" says the LORD; "shall I, who cause to bring forth,
shut the womb?" says your God.

10 "Rejoice with Jerusalem, and be glad for her, all you who
love her; rejoice with her in joy, all you who mourn over 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What does God really want from the people of Israel? (66:2)

하나님은 이스라엘백성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What does God say about the worship of the Israelites? (66: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김기천(NM)
겨자씨 한알 교회, 이기용(NV)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Worship that pleases God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사야 43:21)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예배에 관한 구체적인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드려왔던 예배, 짐승을 죽이고 바치는 희생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Isaiah says that the Israelites were called to worship God. "This people I have formed for Myself; They shall declare My praise." (Isaiah 43:21) Israel was called a worshiping people. Through Moses, God gave them specific commandments regarding worship.
Through today's text, God says something revolutionary. God will no longer receive the worship that Israel has offered for a long time with animal sacrifices. What God really wants is a humble person, a repentant person, and a person who fears and obeys Him.
Worship is the fear of God throughout our lives. We are not offering the body of animals, but our renewed hearts and our transformed lives as holy living sacrifices to God. Whether in-person or online worship service, the choice is not important. True worship is to see the face of God every day in our lives and live the life He want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 **하루 $ 1** per day □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2021년 3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 | 이사야 44:21-29**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 이사야 48:12-13**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 이사야 55:6-13**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헛된 경건 | 이사야 58:1-7**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

새79장(통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여는 질문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공부에도 참석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다양한 교리와 성경적 지식이 쌓입니다. 때로는 그 많은 지식이 정말 나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듣고 배운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꼽아보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 본문 이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있다면 창조론과 구원론 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구약 성서의 핵심이요 토대입니다. 성서는 창조로 시작하여 구원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사야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 산과 숲 그 가운데 속한 모든 생명체들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고 합니다. 한 개인도 아니고 한 민족을 어떻게 모태에서 지으셨다는 것일까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봅시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자궁에서 잉태케 하신 아들입니다. 그 야곱의 12 아들과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통하여 오래전부터 만들어 오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자인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애굽의 노예생활로부

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인도하셨고,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니 너 역시 나를 기억하라고.

③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44:21-22)

2. 모든 피조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44:23)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44:26)

④ 삶 속으로

1.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창조기사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창조기록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당신은 창조기사는 어떻게 해석하며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2.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타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⑤ 암송 구절 - 이사야 44:21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⑥ 자녀와 나눔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합시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새21장(통21장) 다 찬양 하여라

1 여는 질문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주의 시작과 끝은 어디 일까요?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질문은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2 본문 이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13절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알파는 희랍어 알파벳 처음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성서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이사야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려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먼저 이사야 41:4 절을 봅시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 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새번역) 여기서 언급된 이런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 열국을 정복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에 계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의 문을 여신 이도 하나님, 닫으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2)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이사야 44:6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입니다.

3)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8:12 –13을 살펴봅시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피조물을 돌보시고 보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처음부터 끝 날까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유일무이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묘사합니까? (48:12)

2.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48:13)

④ 삶 속으로

1.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고백은 고난으로 얼룩진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2.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⑤ 암송 구절 - 이사야 48:12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⑥ 자녀와 나눔

환경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멸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안았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세계의 관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주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이사야 55:6-13**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새539장(통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 여는 질문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내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아파 울부짖을 때,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내 삶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 봅시다.

2 본문 이해

이사야는 이스라엘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따로 있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용서와 긍휼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께 돌아 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처럼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서 있을 뿐입니다. 회개 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두움에서 돌아서서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사야의 외침처럼 지금이 바로 그 때라 생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속에 살아가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생각과 계획에 항상 사로잡혀 있기 때문 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훨씬 높고 심오하다고 말입니다. (55:8-9)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는 인생의 경험과 연륜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해야만 잘못된 것을 깨닫지만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의 조언과 훈계를 듣는 사람은 실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조언을 듣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자신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리고 다르다고 합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나보다 지각과 명철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6-7절)

2.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9절)

3.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2절)

④ 삶 속으로

1. 당신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 본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까?

2.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당신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⑤ 암송 구절 - 이사야 55:9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⑥ 자녀와 나눔

부모는 언제 자녀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지, 언제, 왜 자녀는 부모의 말과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헛된 경건

새312장(통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1 여는 질문

금식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40일 동안 오로지 물만 먹고 버티는 금식은 극단적인 결심을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40일 금식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왜 저러시나 싶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럴 만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고작 사흘 금식이 최고의 기록입니다. 사십일은 커녕 사흘을 굶는 일도 보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금식에 대해 모진 소리를 합니다. 금식이 나쁜 일인가요? 그가 금식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본문 이해

성경에는 금식에 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에스라, 에스더, 엘리아, 다니엘같은 사람들의 금식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 뿐 아니라 세례 요한도 금식을 했고 바울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육신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끊음으로 영적인 각성, 혹은 깨달음에 도달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동기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음식을 금하므로 그 대가를 치르는 방법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금식문제로 서로 갈등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본인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금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예수님을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경건치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금식하고, 큰 소리로 길에서 기도하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내적 경건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외적 경건과 일치해야 비로서 온전한 경건, 참된 경건이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비난하는 금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금식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온갖 불의한 일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고대사회에서 금식은 대부분 가진 자들이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한끼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금식은 배부른 자들의 종교놀이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의 3절을 보면 이들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합니다. 한 두끼 정도 음식을 안 먹으면서 다른 향락들을 즐길 삶의 여유가 있는 자들이며 집안의 노예들에게 온갖 못된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참된 금식은, 참된 경건은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압제 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의 멍에를 풀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외침앞에 서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 봅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행위, 수많은 예배, 기도와 찬양, 성경공부와 봉사활동, 그 모든 일들이 가진 자들의 종교놀이는 아닌지요. 외적 경건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내적 경건은 텅 빈것은 아닌지요. 바르게 사는것, 사람 앞에 이웃 앞에 정직하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③ 말씀 속으로

1. 이사야는 금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3-4절)

2.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금식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7)

④ 삶 속으로

1.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적이라서 안 간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크리스찬들이 외적 경건과 내적 경건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⑤ 암송 구절 - 이사야 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

⑥ 자녀와 나눔

금식에 대한 의미를 자녀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가능하면 가족 전체가 하루에 한 두 끼 금식을 실천해보고 부모와 자녀들이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week 1 The First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44:21–29**

Two facts we shouldn't forget

1 Opening Question

Those who have been in church for a long time have heard numerous sermons. They also attend Bible study to learn the various doctrines and biblical knowledge that make up the theology of Christian faith. Sometimes I wonder if that much knowledge is really needed for them. What would we say are the two most important things about the Christian faith?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most essential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are creationism and soteriology. These two are the core and foundation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The Bible is a book that begins with creation and ends with salvation. Isaiah's passage today reminds us of these two foundations that we should never forget.

Isaiah praises God who created all things. He tells us to praise the Lord with all the living creatures in heaven and earth, mountains and forests. But Isaiah emphasizes that most important is that God created Israel. It is said that Jehovah, the Maker of all things, created Israel from the mother's womb. How does Jehovah build a race in the mother's womb and not just an individual?

Notice that Isaiah calls the nation of Israel Jacob. Jacob is Isaac's son . Isaac is the son of Abraham born by God's promise. He is the son that God gave birth to in Sarah's womb, who had no children. His descendants would become a great nation. The Israelites consisted of Jacob's 12 sons and their descendants. In other words, Israel is a nation that God created since ancient times through the genealogy of Abraham, Isaac, and Jacob.

To Israel, God is both the Creator and Savior. The God who led the Israelites from

slavery in Egypt to Canaan. The God who constantly loves, forgives, and offers a helping hand despite their transgressions and sins. The God of Abraham and Jacob is our God too. God created us, guides us patiently, and forgives us. God, Creator and Savior, says "I will remember you forever", and we should remember Him forever too.

③ Into the Word

1. What does God tell the Israelites to remember? (44:21–22)

2. What is required of all creation? (44:23)

3. What is God's promise to Israel? (44:26)

④ Into our Life

1. Do you believe the creation story recorded in the Bible? vMany are hesitant to accept the creation account literally. How do you interpret the creation narrative and what does it mean to you?

2. How can you explain to others that God has saved you?

⑤ Memory Verse - Isaiah 44:21

"Remember these things, O Jacob, and Israel, for you are my servant; I formed you; you are my servant; O Israel, you will not be forgotten by me. "

⑥ Sharing with your children

Let your children talk about the things they value most. Then share what you think are the most important Christian teachings.

week 2 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48:12–13**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1 Opening Question

Where do humans come from and what is their destination? Where does the universe begin and end? What do the beginning and end of history look like? The questions about the beginning and the end are among the most ultimate questions of humanity. How is Isaiah answering this question?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n the last chapter of the Bible, Revelation 22:13, there is a very famous passage.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Alpha is the first letter of the Greek alphabet and Omega is the last letter. The Bible closes with a declaration of God who is the beginning and the end.
However, this idea already appeared long ago in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 of Isaiah, the statement that Jehovah God is the first and the last appears three times.

1) God in charge of history
Let's first look at Isaiah 41:4. "Who has performed and done it, Calling the generations from the beginning? I, the Lord, am the first; And with the last I am He."
God's achievement mentioned here is that it was God who raised up Cyrus, king of Persia, to conquer the nations. This is a confession that God is the ruler of history. It means that God, who was at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will be here now, and be at the end of human history. It means that the one who opened the door of history is God and the one who will close it is God.

2) The only one God
Second, let's look at Isaiah 44:6.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s King and Redeemer, the Lord Almighty: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The words "God is first and last" mentioned here means that God is the only God. It means that the first and the last are the same. That means there is no middle ground between the beginning and the end. It means that there is only one God in this world.

3) God the Creator

Finally, let's look at today's text, Isaiah 48:12–13. "I am He, I am the First, I am also the Last. My own hand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nd my right hand spread out the heavens; when I summon them, they all stand up together."

The words "first and last" here refer to God the Creator. It means that it is God who made this world exist. It means that God is the one who cares for and preserves the creation until the last day.

That's right. God is the first and the las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he is the organizer of history, the only one God, and the Creator God. This God is the God we believe and trust.

③ Into the Word

1. What kind of being does God describe Himself as? (48:12)

2. What is the wonderful thing that God has done? (48:13)

④ Into our Life

1. What lesson does the statement that God is the ruler of history teach about the modern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stained with hardships?

2. How can the monotheistic faith of Christianity coexist peacefully with many other religions in this world?

⑤ Memory Verse - Isaiah 48:12

"Listen to me, O Jacob, and Israel, whom I called! I am he;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⑥ Sharing with your children

People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al crisis. There are voices warning that the end of the world is near. God the Creator has appointed us administrators of the creation. Let's talk about what we can do to preserve the ecosystem of creation.

week 3 The Thir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55:6–13**

When you experience the absence of God

1 Opening Question

We often feel God's absence. There are times in my life that I feel God is far away when I groan in pain, when I cry in pain, and when I wander without knowing the way to go. Listen to the voice of the prophet Isaiah.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saiah exclaims to the Israelites,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on him while he is near." This is not to say that they have a limited time or opportunity to meet God. This is a desperate request that they should not procrastinate and return to God right now. God always listens to our prayers and is with us. It means return to the Lord who is always ready to offer forgiveness and compassion.

God is always facing us like the sun in the sky. We are the ones who turned away from God. Repentance is turning around. It is to turn from the darkness of sin and turn toward God who is the light. What we need is the courage to turn around. Like Isaiah's cry, now is the time to call on Jehovah's name.

One of the many reasons we live in God's absence without experiencing God's presence is because we are always obsessed with our own thoughts and plans. The Lord declares,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55:8–9)

We experience this difference between heaven and earth in our lives. For example, parents and their children have encountered different life experiences. That's why parents are often stressed. Even though the child is obviously wrong, he stubbornly refuses to listen to his parents. Many people realize that they are wrong only after

making mistakes, but the wise learn from the mistakes of others. Those who listen to the advice and admonition of experienced and knowledgeable people can avoid mistakes.

The reason people don't take advice from others is because they trust themselves. They don't trust others as much as they trust themselves. God's voice is clear. It is said that God's thoughts are higher and different than ours. Faith is trust. It is to acknowledge and trust God who is superior to us in wisdom and insight.

3 Into the Word

1. What is Isaiah urging the Israelites to do? (55:6–7)

2. Why should we listen to God's voice? (55:8–9)

3. What are the results of acknowledging and trusting God? (55:12)

4 Into our Life

1. Have you ever felt that God is far away? When do you experience God's absence?

2. How do you overcome when you are not experiencing God's presence in your life?

5 Memory Verse - Isaiah 55:9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Let's talk honestly about when parents feel anxious toward their children when they don't want to listen to their parents' advice.

Vain piety

1 Opening Question

Fasting is not easy. Some people fast for 40 days like Jesus. Fasting with only water for 40 days is not possible without extreme determination. I grew up watching my father and mother fast for 40 days. When I was young, I wondered why, but as I get older, I think it is worth it. But for me, fasting for only three days is the longest I've managed. It isn't common to starve for three days, let alone forty days. Today Isaiah speaks harsh about fasting. Is fasting a bad thing? Why is he criticizing fasting?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re are many recordings of fasting in the Bible. Among the Old Testament characters, fasting by Ezra, Esther, Elia, and Daniel is well known. In the New Testament, not only Jesus but also John the Baptist fasted. Paul fasted also. And the tradition of fasting continues to this day among many Christians.

What is the reason for fasting? In short, the main purpose is the motivation to reach spiritual awakening or enlightenment by breaking the most fundamental needs of the body or to hear God's voice in difficult situations. In addition, people confessed their sins and transgressions and fasted as a way to pay the penalty for their sins.

We remember Jesus and the Pharisees struggling with each other over fasting issues. Jesus himself fasted in the wilderness for 40 days before starting his public life, but he did not ask his disciples to fast. The Pharisees accused Jesus' disciples of not fasting and said that they were people who like to eat like Jesus. In the eyes of the Pharisees, Jesus was an ungodly person. On the other hand, Jesus accused the Pharisees of fasting as an outward show for people and being hypocrites like whitewashed tombs who were praying out loud on the street. The inner godliness, called fasting, can be regarded as complete and true godliness only if it matches the external godliness expressed in a holy life.

The same is true of the fasting people Isaiah condemned. These were the people who fasted as a show for God and people. They complained that God did not recognize their fasting. It is said that while fasting, they fought and quarreled with each other and committed all kinds of injustice.

One thing we should remember is that in ancient society, fasting was possible mostly for the rich. To those who were only affordable to eat one meal a day, regular fasting would have been a religious game for the rich. Verse 3 of today's text says, "On the day of fasting, they seek entertainment and do all kinds of work." They are said to be people who can afford to enjoy other pleasures while not eating one or two meals and to make the slaves of the household do all kinds of bad things.

So Isaiah proclaims: True fasting and true godliness are about living righteously. It is said that fasting frees the oppressed and releases their yoke. Let's reflect on ourselves today as we meditate on Isaiah's cry. All of our religious activities, countless worship, prayer and praise, Bible study, and volunteer work could become religious games for those who can afford it. You have external godliness, but your internal piety is empty. Living right, living honestly, and living righteously in front of others is true godliness.

3 Into the Word

1. How does Isaiah describe those who fast? (58:3–4)

2. What type of fasting will please Jehovah? (58:6–7)

4 Into our Life

1. It is said that the biggest reason people don't go to church today is because churchgoers are hypocritical. What do you think?

2. Why do Christians disagree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piety, and how can they overcome it?

5 Memory Verse - Isaiah 58:6

"Is not this the fast that I choose: to loose the bonds of wickedness, to undo the straps of the yoke,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and to break every yoke?"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Let's talk about the meaning of fasting together. If possible, try to fast one or two meals a day as a whole family and share experiences of the family members with each other.

Advance : **# 3022587**
Country : **Honduras**
Serving At : **United Methodist Mission in Honduras**
Home Country : **Costa Rica – San Josè**

Jimenez Rojas, Yorleni R.

Yorleni R. Jiménez Rojas is a United Methodist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serving as the mission program director for the United Methodist Mission in Honduras. She is based in Tegucigalpa, Honduras.

Ms. Rojas' program focuses on congregational development. Her primary responsibilities are developing, promoting, implementing and reviewing strategic directions for programming; working with Honduran entities in advancing general programming; and identifying and administering mission funds congruent with programming.

Although Methodism came to the northern coast of Honduras 100 years ago through British Methodism, and later with the Methodist Church of the Caribbean and the Americas, it is fairly new for the Honduran Spanish-speaking community. The mission in Honduras began in 1998. In 2002, the Honduras Initiative officially became a United Methodist mission. It currently includes 19 congregations and 53 faith communities. As an emerging new church, the mission is showing urgent need for pastors and the development of clergy and lay leadership.

The Honduran Mission constituency is largely composed of economically marginalized people with limited formal education. One area getting Ms. Rojas' attention is in-country networking and alliances with other secular, nongovernmental and Honduran religious organizations.

Fostering those relationships not only strengthens the Honduran Mission with national resources, but also continues to forge its Honduran identity and empowers the cultural aspect of the mission. Ms. Rojas' position is crucial in guiding the Honduran Mission to maturity.

Born in Costa Rica, Ms. Rojas was 8 years old when her family converted to Christianity. Passionate about studying the Scriptures, she said, "I had a burning desire to serve God." As a youth, she taught Sunday school and encouraged others to follow Jesus. Entering the university, she began studies in psychology and journalism. "I had a strong desire to help others," she recalled, "and psychology was a good medium for it. The journalism career I left aside because of economic limitations." She earned a psychology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Costa Rica and started pursuing a master's degree with an emphasis on the Old Testament.

Prior to her current assignment, Ms. Rojas was a psychotherapist at Casa Main Project, working with girls ages 2 to 12 who had suffered abuse. She helped to plant and served as a pastor of Jesucrista Pan de Vida (Jesus Christ Bread of Life), an independent church. In charge of Christian education, she also preached. She experienced what she called "a second stage of questioning in my Christian pilgrimage, which had been characterized by much service. I began a search to find a genuine Christian spirituality, centered on being and not so much on doing (activism)," she said. "This helped m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our human nature, in contrast to the divine nature, and to be able to resize issues such as faith, grace, salvation and mission."

Confronted by multiple losses, Ms. Rojas entered what she termed "a time of dispossession, where only the grace and love of God sustained me. God comforted me and guided me through a process of healing and freedom, and made me resize my ministerial call," she said. "My fervent desire is to arrange my life so that God's purpose is fulfilled in me, and that everything he has given me is at his service."

Ms. Rojas has a daughter, Rebeca, who is a member of Comunidad Cristina Perdonados para Servir (Community Cristina Forgiven to Serve) in San José, Costa Rica. The church is part of an independent denomination.

Contact Information : yjimenezrojas@umcmission.org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김영봉 목사 (와싱톤 사귐의교회, VA)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바울의 권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무릎 꿇고 눈 감고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계속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기도란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간순간 의식을 일깨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기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늘 성령 충만하라'고 말할 수도 있다. 기도의 초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지 과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다. 그들이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말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종일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기도에 대한 생각과 내용을 바꾸고 기도의 습관을 바꾸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분과 하나님은 뗄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일심동체가 될 정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었다는 뜻이다. 그분은 이러한 합일의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셨다. 항상 기도의 상태에 계셨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늘 진리였고 그분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 그분의 삶은 온전한 '산 제물(롬 2:1)'이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이러한 차원에서 살도록 힘쓰라는 뜻이다. 항상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그분과 하나됨에 이르러 생활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뜻이다.

가끔 '삶이 곧 기도다'라는 말을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생활 자체가 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아무리 완전한 기도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기도 시간을 따로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그분처럼 밀도있게,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사셨던 분이 또 있을까? 그런데도 그분은 밤이 깊을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곤 하셨다. 새벽마다 제자들은 그분을 찾아다녀야 했다. 하물며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우리는 더 말해 무엇하랴.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 없이 모든 시간이 온전히 제물로 드려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삶 전체를 기도의 삶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해야 한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 일상생활을 멈추고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의 기도'란 결국 빈말이나 기도를 피하려는 핑계가 될 뿐이다.

바람직한 기도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전념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기도의 삶'과 '삶의 기도'를 통합시켜야 한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자가 떠맡는 과정이다. 기도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사 6:8)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며, 마침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일어서는 것이다.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무력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그분의 뜻을 위해 일어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려 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그 옛날 십자군 원정 때처럼 하나님을 위해 칼을 들어 원수들을 칠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나님을 대신해 영광과 승리를 누리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분을 대신해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가 아니고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없다.

〈기도〉(Prayer:두란노 역간)에서 리차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이것을 '고난의 기도'라고 불렀다.

고난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나 소원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우리의 변화나 하나님과의 연합과도 거리가 멀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구속하여 사용하시기를 구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애통을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 속으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다.

나는 고난의 기도가 '우리의 변화나 하나님과의 연합과도 거리가 멀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공로감이나 영웅심을 버리고 대속적 고난을 짊어지려면 사귐의 기도를 통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소멸되고 속사람이 성장해야만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난의 기도를 통해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사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가 개인적인 관심사를 벗어나 '그(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마 6:33)를 위해 헌신하도록 만든다. 이 헌신에는 온갖 손해와 고난이 따르지

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골 1:24)을 채우는 영예를 선사한다.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가슴 벅차다.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해 공을 하나님께 넘겨 버렸다고 빈번하게 생각한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떠맡겨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를 진실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자. 내가 진실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가? 아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실하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으시는가? 아니다. 그분은 내가 그런 바람을 갖기 이전부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단지 내가 그런 거룩한 열심을 품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기도를 드리는가? 그것은 결심의 표현이다. '저를 진실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에 담긴 뜻은 '제가 진실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의식한다면 기도를 마쳤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면 반쪽 기도일 뿐이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기도로써 자신이 할 일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귐은 지속되어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떠맡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기도한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는 온전해진다.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이진희 목사 (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시편 23편을 읽노라면 어렸을 때 달력에서 보았던 스위스의 아름다운 초원에서 양들이 풀을 뜯는 한가로운 풍경이 떠오른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양들도 여기저기 보인다. 지팡이가 들려있는 목자의 품에는 어린 양이 안겨 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 다윗이 피리 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 얼마나 목가적인 풍경인가?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은가?

이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양들이 부럽기만 하다. 나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부족한 것만 그렇게 많은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시편 23편의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편 23편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 이리나 늑대("원수" 5절)도 나온다. 3절에 나오는 "의의 길"은 곧은 길, 똑바른 길을 말한다. 양들은 하루 종일 험한 산을 오르내려야 한다.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사망의 골짜기"가 되고 만다. 그래서 양들이 다니는 길은 지그재그로 나 있다. 그래야 안전하게 양이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그재그로 난 길을 통해서 험한 산을 오르내린다. 우리가 그린 그림에는 그런 험한 길이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린 그림을 고쳐보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던 그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려 넣어야 한다. 험한 산과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나 있는 길들을 그려야 한다. 그곳으로 걸어가는 양들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저 만큼서 양들을 주시하면서 하루 종일 따라붙는 이리와 늑대도 그려야 한다.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그림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었는데, 이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저 구석에 조그맣게 보일듯 말듯하게 있다. 물론 나무 그늘 밑에서 피리 부는 목동도 보이지 않는다.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늑대를 쫓느라 피리 불 사이가 없다. 이제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림은 시편 23:2만 가지고 그린 것이었다.

시편 23편의 양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니, 좀 실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좀 더 그림을 손봐야 한다. 우리가 그려온 그림은 온통 푸른색이었다. 산도 들도 나무도 하늘도 다 푸른색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대대적으로 그 위에 암갈색을 덧칠해야

한다. 광야를 그려 넣어야 한다. 아니 광야를 그려 넣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시편 23편의 양들은 몽골이나 뉴질랜드에 사는 양들처럼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살아가는 양들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양들은 광야에 산다. 이스라엘은 절반 이상이 광야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은 양 젖(우유)를 말한다. 꿀은 대추야자를 말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의미도 있다. 성경에 나오는 양들은 이런 광야에서 살아간다.

광야에서 평생을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베두인들이다. 이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다.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은 양을 키우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만나만 먹고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수십만 마리의 양을 가지고 나왔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양을 쳤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가? 다윗도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다. 베들레헴도 광야다. 시편 23편의 양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려왔던 시편 23편의 그림 같은 곳은 보지도 못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우리 앞에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만 우리는 험한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고 해서 "광야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광야는 단순히 훈련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다.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감상해보자. 가장 먼저 눈에 확 띄는 것은 암갈색 광야다. 거기에 사망의 골짜기도 있다. 저 만큼서 양들을 노려다보고 있는 이리와 늑대도 보인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저쪽 구석에 보일듯 말듯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양들은 지금 그곳을 향해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다. 모든 것이 암담한 상황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그림에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목자다. 이 목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 당신의 인생 그림에는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큰일이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한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먹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방어할 능력도 없다. 길도 못 찾아간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다. 정말 대책 없는 짐승이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이 양이다.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목자다.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목자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양들은 광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하다. 또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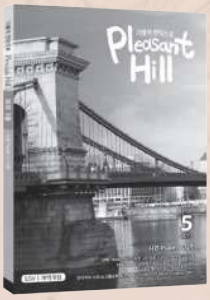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행복한 양들이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아니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새열매교회(남기정, 650-773-8589)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윌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함무근, 323-257-7713)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한동수,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유혁재,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김선용, 772-353-0931)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고은영, 847-205-9642)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루가연합감리교회(한장탁,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이진희,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주요한,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톤한인교회(김한성,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1/01			2021/02			2021/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잠언	1-2	01	이사야	1	01	이사야	4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20		9-10	20		8-9	20		주일
21		11	21		10-11	21		18
22		12	22		12-13	22		19
23	에스더	1	23		주일	23		20
24		2	24		14-15	24		21
25		주일	25		16-17	25		2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9		7-8	29		21	29		3
30		9-10	30		주일	30		4
			31		22			

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아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댜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도은배 목사 (Church of the Incarnation UMC, IL)

- **주일 칼럼**
  정찬응 목사 (해밀톤한인연합감리교회, GA)
  송종남 목사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 DE)
  김덕신 목사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 PA)
  이상현 목사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C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